

리아호나

경전은 어떻게
번역되나요? 20쪽

새로운 사도,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12쪽

장년 선교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음, 26쪽

남편이 외설물에 연루되었을
때, 아내에게도 치유가
필요하다, 34쪽

10분 만에 찬송가 연주법
배우기, 54쪽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너를 사람이 취하여 자기
포도원에 기른, 가꾼
감람나무에 비유하리니,
...

... 또 네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나의
명령을 지키고, 원열매를
다시 내게로 가져와, 나의
포도원이 더 이상 못 쓰게
되지 않고, 나쁜 것은
버리웠으므로, 보라 내
포도원의 열매로 인하여
너희가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릴 것임이니라.

야곱서 5:3, 75

비둘기가 노아에게 가져다
준 감람나무 잎사귀부터,
감람 산에서 가르치신 구주,
그리고 야곱의 감람나무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국가를 전역에 걸쳐 널리
재배되는 올리브는 경전과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예언과 개인적인 계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영원하신 아버지의 딸들

특집 기사

- 12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재능 있는 지도자, 헌신적인 아버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사랑이 많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래스번드 장로는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한 사업가이자 신권 지도자로서
쌓은 자질을 바탕으로 지도력 기술을
발전시켰다.
- 18 그 사람이 감독이라고요?
패트릭 제이 크로닌 3세
나는 왜 그 자매님이 내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는지 알고있었다. 삼십 년 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표지

앞표지 및 뒤표지 안쪽: 사진: 레스 닐슨 앞표지
안쪽: 사진 © RayTango/Thinkstock.

20 경전 번역: 마음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
알 발 존슨
우리의 모국어로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다.

26 장년 선교사로 봉사함
러셀 엠 닐슨 회장
장년 선교사로 함께 봉사하는 특별한
기회에 대해 기도해 본다.

28 장년 선교사: 여러분이 필요하며
여러분은 축복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리처드 엠 롬니
부부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생각한 것보다 융통성 있고,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훨씬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된다.

34 가정이 외설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아내와 남편 모두 치유가 필요하다
익명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구주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감독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눈다.

38 망대 위의 파수꾼
어떻게 선지자들이 망대 위의
파수꾼과 같은지에 대해 배움으로써
선지자에 대해 이해를 키운다.

교회 본부 기사

- 8 단상
이 안내서가 맞는 것일까?
루스 실버
- 9 교회에서 봉사하며
여러분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익명
- 10 복음 교전
신권: 확고한 닷
엘 톰 페리 장로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다시 만날 때까지
영적인 은사를 간구하십시오
조지 큐 캐넌 회장



48

- 44 사탄의 위조품을 알아보는 눈
데니스 시 건트
사탄의 거짓말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이의 유사점 대신 차이점에 집중할 때, 사탄의 간계와 거짓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 48 청년 성인 소개
마다가스카르에서 헤아리는 축복
민디 앤 셸루
많은 어려움이 잔재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솔로푸 라발로주나는 자신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선지자를 따르세요!

- 50 영적인 안정성: 가라앉지 않을 배를 만드십시오
데일 지 렌랜드 장로
배를 건조할 때 가라앉지 않고 안정적으로 떠 있도록 세심하게 건조해야 하듯이, 우리 각자는 이 네 가지 원리를 통해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54 10분 만에 찬송가 연주법 배우기!
대니얼 카터
피아노를 쳐 본 적은 없지만 늘 배우고 싶었다면,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 57 그만두기 위해 열심히 하기
그레첸 블랙번
나는 피아노 레슨을 그만둘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참이었다. 마침내 부모님이 찬송가 50곡을 칠 수 있게 되면 레슨을 그만뒀도 좋다고 하였고, 나는 즉시 찬송가 연습을 시작했다.
- 58 충격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파올라 사유피
삶의 가장 힘겨운 경험을 되돌아 보면서, 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
- 60 비록 수줍음이 많을지라도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려 노력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 62 우리들 공간
- 63 포스터: 맛있게 보입니까?
- 64 질의응답
후기 성도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76

- 66 사도들의 답변
사도는 어떤 일을 하나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67 마음의 평화
캐럴 에프 맥콩키
선지자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평화를 느낀다.
- 68 이단의 간증
래리 힐러
이단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 70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동전
안젤라 페나 데일
돈이 하나도 없자, 애나는 궁금했다. "내일은 필 먹죠?"
- 72 선지자와 사도를 따를게요
제나 커포드
이번 달에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를 따를 수 있을까요?
- 74 몰몬경의 영웅
회개한 엘마
- 75 나는 몰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
- 76 몰몬경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엘마
- 79 색칠하기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2016년 4월호 제53권 제4호

리아호나 13284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편집장: 토마스 에스 몬슨, 핸디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정회원: 라셀 엘 벡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렌드

편집인: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인: 제인스 비 마르티노, 캐럴 에프 맥쿠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쉬튼, 랜달 케이 베네트, 크레이그 에이 카튼, 철크 에이 에스플린, 크리스토퍼 콜든, 더글라스 디 홀스, 래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슨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메간 베로호프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타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드, 매튜 디 플라톤, 로리 플라톤, 게렛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짐 핵킹, 살렛 라카발, 민디 앤 레빗,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피커, 켄 핀보로우, 리차드 엠 홀니, 민디 앤 셀루, 폴 뎀버그, 마리아 위디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킷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자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윙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킷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 팀: 콘니 바스포 브릿지, 줄리 벵트, 케이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카비, 지니 제이 날슨, 가일 타데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의지, 자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01호, 제53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6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

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품종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스리랑카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pril 2016 Vol. 40 No. 4,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한 가지 예이다.



“비록 수줍음이 많을지라도”, 60쪽: 복음을 나누는 일에 가정의 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복음 나누는 일을 망설이는지 가족으로서 토론해 본다.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 자신감을 갖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뒤 가정의 밤에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지 기도해 본다. 가족들 각자에게 공과가 진행되는 동안 간증을 나눠 달라고 권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회복이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공과를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 뒤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일지에 적어 본다.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는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liahona.magazine 에 가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75

간증, 64, 68

개종, 43, 58, 75, 76

경전, 20

계명, 8, 72

계시, 4, 10, 20, 41, 42, 50, 70, 72

기도, 41, 64

물문경, 43, 44

방문 교육, 9

봉사, 9, 26, 28, 41

부름, 18

비통, 58

사랑, 40

선교 사업, 26, 28, 60

선지자 및 사도들, 10, 66, 67, 72

성신, 44, 50

속죄, 34

순종, 8, 34, 62, 72

신성한 본질, 7, 12

신앙, 34, 48, 58, 60

십일조, 62, 70

안식일, 79

영적인 은사, 12, 80

예수 그리스도, 20, 34, 43, 58

외설물, 34

용기, 48, 64

용서, 34

위조품(거짓), 44, 63

음악, 54, 57

재능, 40, 54

정직, 12, 62

제자 됨, 12, 26

침례, 75, 76

평화, 50, 67

활동 촉진, 18

회개, 18, 74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예언과 개인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 오늘날 지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항상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인도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신성한 방식은 고대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다시 우리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 조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신권과 더불어 그 열쇠와 모든 권리 및 권능, 그리고 신성한 신권 권능의 기능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이끌 권한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우리는 일 년에 두 차례 열리는 연차 대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분 종들을 통해 듣는 기회를

누립니다. 그것은 비할 데 없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종들이 말씀을 받을 때와 같은 영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교리와 성약 50:19~22 참조) 그들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속제를 하십시오”

오래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셨던 분이 제게 그분이 준비하던 연차 대회 말씀을 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후임 사도였습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전하게 하실 말을 찾는 데 제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셨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아, 이번이 스물두 번째 수정본이라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정하고 친절하셨던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님이 일찍이 제게 강조하셨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할, 계시를 받고 싶다면 속제를 하세요.”

저는 그 스물두 번째 원고를 읽으며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신의 영향력 안에서 심혈을 기울여 공부했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쯤 속제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분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변화되었음을 저는 압니다. 제가 읽었으며 그분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훨씬 넘어서는 메시지가 제게 임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원고에서 읽은 말씀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제게 꼭 필요했던 것으로,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계시와 영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를 비롯한 숱한 경험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은,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귀 기울여 큰 혜택을 얻으려면, 계시를 받는 대가를 직접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듣게 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 낱말의 마음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각자 자기 길을 선택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격려받아야 하며, 어떤 복음 진리를 받아야 가장 도움이 될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연차 대회 메시지를 시청하고 난 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지를 전하는 영의 음성을 생각과 마음으로 느끼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계시는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 신앙으로 노력할 때 주어질 것입니다. 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그리고 영의 증거를 얻었기에 그것이 참됨을 압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아 이여링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작성하던 연차 대회 말씀 원고를 공부했던 일화를 소리 내어 읽어 본다. "계시를 받고자 치러야 할 대가"란 무엇인지 질문해도 좋다. 의견을 나눈 후,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받을 때와 같은 영의 영향력 안에서" 다가오는 연차 대회 메시지를 받고자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여러분이 방문한 이에게 권유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연차 대회를 통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앤 라레스카 알베스 데 소우자

나는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고 싶은 전공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기에, 나의 결정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려고 기도했다.

응답은 다음 날 *리아호나*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는 동안 주어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선택해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나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신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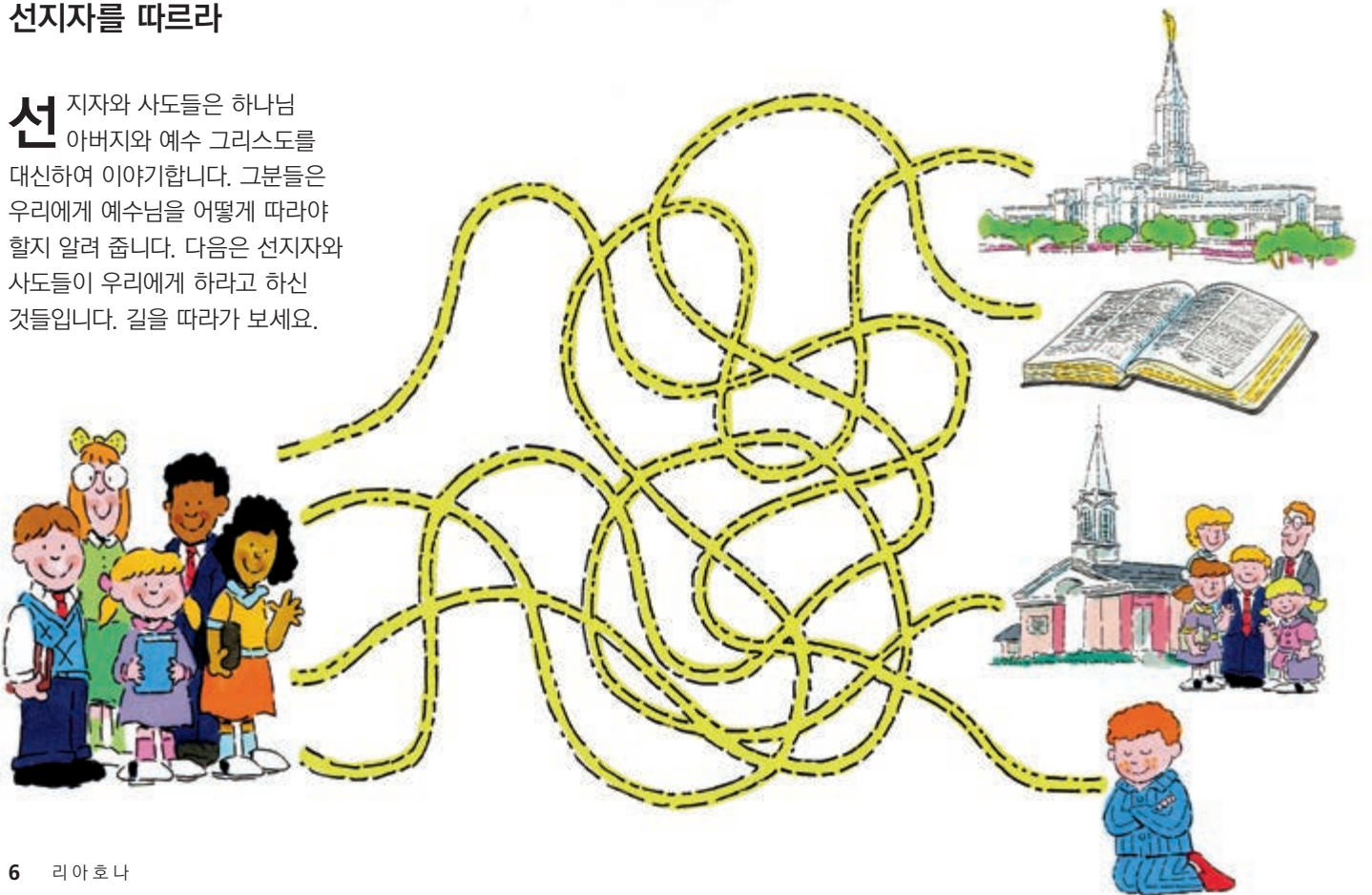
받은 확신은 내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글쓴이는 브라질 세르지피에 산다.

사진: 김화, 모델: 포즈를 취함

선지자를 따르라

선지자와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알려 줍니다. 다음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길을 따라가 보세요.



삽화: 빌 채드와 베이글리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reliefsociety.lds.org에서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딸들

경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가르친다.(사도행전 17:29)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내인 에머 스미스를 “내 딸”이라고 하셨다.(교리와 성약 25:1) 가족 선언문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 딸”이라고 가르친다.¹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제1보좌인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는 이렇게 말씀했다. “[전세]에서 우리는 여성으로서 우리가 지닌 영원한 정체성에 관해 배웠습니다.

“지상으로 필멸의 여정을 떠나왔다고 해서 그 진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²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름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좌절감을 비롯하여 소망과 꿈을 알고 계십니다.”³

스티븐스 자매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씀한 바 있다. “지상의 가족들은 모두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전통적인 형태의 굳건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결혼 여부나 자녀의 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소셜 미디어의 상태 메시지와 같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⁴

보충 성구

예레미야 1:5; 로마서 8:16; 교리와 성약 76:23~24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캐롤 엠 스티븐스, “주님 가족 주셨네”, 리야호나, 2015년 5월호, 11쪽.
3. 제프리 알 홀런드, “청녀들에게”, 리야호나, 2005년 11월호, 28쪽.
4. 캐롤 엠 스티븐스, “주님 가족 주셨네”, 11쪽.
5. topics.lds.org의 복음 주제에서 “첫번째 시헌 기록” 참조.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첫번째 시헌 기록에서⁵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진리를 확인해 주고 있다.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애쓰던 어린 조셉은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여쭙 봐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1820년 어느 봄날 아침, 기도하기 위해 숲으로 간 그는 곧바로 어떤 어둠의 힘에 사로잡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생각해 볼 점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안내서가 맞는 것일까?

루스 실버

그 자전거 여행으로 나는 내 삶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몇 년 전, 나는 언니와 올케, 그리고 조카딸과 함께 프랑스로 자전거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날의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세 장짜리 여행 안내서를 받았다. 자전거로 포도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안내서는 “북쪽으로 50m 간 다음, 왼쪽으로 돌아 110m 가시오.”라는 식으로 가야할 방향을 지시해 주었다. 안내서에는 대개 표지판과 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근사한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 안내서와 지형이 더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다.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린 우리는 올바른 장소라고 알았던 마지막 지점으로 돌아가서 갈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곳에 가 보니 예상대로 작은 도로 표지 하나가 있었다. 안내서에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놓친 표지였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동하면서 안내서를 맞추어

보니 그제야 모든 게 들어맞았다.

이 경험은 하나의 비유로서 내가 품고 있던 의문을 해결해 주었다. 그 의문이란, 도대체 왜 복음에 간증이 있던 사람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이유를 분명히 알 것 같았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내서(하나님의 말씀)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지도가 우리가 있는 지형과 더는 맞지 않는 것이다.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면, 잘못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겠다고 재다짐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었다고 기억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회개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안내서가 우리가 있는 곳과 더는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안내서에 의문을 품는다. 다시 되돌아가는 대신, 안내서를 탓하며 완전히 외면하고 만다. 마침내 목적지에 대한 꿈을 접은 채,

일시적으로는 매우 멋져 보일지 모르나 가야 할 길이 아닌 곳을 이리저리 떠돌다 길을 잃고 만다.

우리는 매일 경전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 6개월마다 교회 연차 대회를 시청하기도 한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도로 지도를 점검해서,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번은 연차 대회를 듣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연차 대회에서 주어지는 방향과 지침들이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길과 들어맞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을 따르면 지도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주듯이, 경전을 공부하고 살아 계신 선지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의 진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마침내는 해의 왕국의 본향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에 살았고, 작년에 사망했다.



여러분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익명

여러분은 나부 시대 이래로 사랑과 영감에 찬 방문 교육을 통해 서로를 위해 봉사해 온 여성들의 전형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나이,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조앤의 방문 교사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앤(가명)은 제 며느리입니다. 조앤과 같은 저활동 자매를 방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조앤처럼 방문을 그다지 반기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처음부터 여러분의 방문을 원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앤은 여러분이 가끔 들려서 안부를 묻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다며 여러분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더군요.

조앤이 제 아들과 결혼한 후 19년이 지났지만, 그 애가 자신의 방문 교사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아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려 깊고 친절한지 제게 말해 줬어요. 자기가 아팠을 때 여러 번 도움을 주었고 제 손녀를 청년회에 데리고 가 주겠다고 했더군요.

지난 십 년 동안, 제 아들과 며느리와 그 가족은 저희 집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고 돌봐 주기를 기도해 왔답니다. 우리가 서로 멀리 살기에 제 대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누군가를 보내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애원했었어요. 조앤의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제 아들과 조앤이 지금은 지혜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지만, 그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조앤이 담배를 피우는 사실에도 크게 아랑곳하지 않으셨더군요. 교회를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아이를 판단하지도 않으셨고요.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아이의 진면목을 보셨고, 비록 자신은 교회에 가지 않지만 어머니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교회에 나가서 간증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조앤이 수술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 아이가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자초한 것이라고 여기는 대신 저녁 식사를 준비해 오셨죠.

여러분이 제 손녀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녀 아이는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일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할 거예요. 손녀 아이가 얘기하길 하루는 여러분이 차도 없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몇 킬로를 걸어와서 쿠키를 갖다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냥 너랑 너희 어머니가 생각났는데 뭔가 해 줄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들렸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방문 교사라는 부름에 대해 여러분이 보여 주신 헌신에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부 시대 이래로 사랑과 영감에 찬 방문 교육을 통해 서로를 위해 봉사해 온 여성들의 전형이십니다. 저활동인 제 며느리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으로써 여러분은 그런 봉사와 사랑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엘 톰 페리
(1922~2015)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 확고한 닷

본 기사는 엘 톰 페리 장로가 어린 신권 소유자들에게 전하려는 목적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인 2015년 5월 28일에 준비한 말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제 삶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신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청남 여러분에게도 확고한 닷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신권이 여러분 삶에 힘을 발휘하려면 여러분이 신권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권에 관한 어린 시절의 경험

저는 유타 주 로건의 안락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음식이나 집, 교육 문제로 어린 제가 걱정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삶이 너무도 순탄했기에, 저에게는 제가 붙잡을 닷이 되어 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그 닷은 바로 하나님의 신권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 살 때 감독으로 부름받으셨고, 19년 동안 제 감독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아버지로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도해 주신 것은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생일에 아론 신권을 받기를 고대했던 가장 큰 이유도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저를 성임하는

아버지의 두 손을 느끼던 그 특별한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후 저는 아론 신권의 직분들을 하나씩 거쳐 올라가며 부름을 받고 즐겁게 행했습니다.

성찬 전달은 제게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저는 사람들이 주님의 살과 피의 상장을 취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권을 이해하며 자라나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에 다닌 지 일 년이 지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의 매 순간을 즐겼고 동반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중에는 저에게 힘이 되어 준 동반자도 있었습니다. 함께 임무를 완수하며 저는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국이 전쟁에 처해 있었기에 저는 귀환하여 미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대학으로 돌아갔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게 되어 미국 곳곳을 다니며 많은 신권 부름에 봉사하는 동안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정착하게 된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저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았으며, 17개월 후에는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십이사도로서 얻은 교훈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바로, 신권에는 인도와 닷, 그리고 보호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권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아담은 지상에 오기 전부터 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담의 후손들이 신권을 지니고 흩어지자 신권이 집행될 방식이 조직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신권 소유자인





가족들을 감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조직은 이삭과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수 세기 후,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속박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으나, 모세가 이 일을 행하자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뿔기세택 신권을 받도록 준비된 백성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가 오시기까지 아론 신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성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일이 제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바로 뿔기세택 신권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이사도를 부르시고 신권의 율법과 반차를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를

선임 사도로 부르시어 당신 교회의 권세권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교회를 관리할 선임 사도를 선택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권 의무에 관하여 선임 사도에게 지침을 주시는 분도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신권은 주님과 구주로부터 시작되어 선임 사도를 거쳐 곧바로 다른 사도들로 이어지며 교회의 다른 신권 소유자들에게까지 뻗어 나갑니다. 권세의 열쇠는 사도들에게 주어지며 지상에 그 열쇠들이 존재하는 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신성한 인도는 우리를 보호해 주며,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신권은 지상의 존재가 이끄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신권은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신권의 교리를 배우십시오

제가 청남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신권의 교리를 공부하고, 신권을 행사할 때 여러분이 지닌 권능을 이해하며, 신권이 여러분과 타인들을 어떻게 축복할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신권의 교리를 배우고 신권 의무를 다한다면, 신권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안겨 줄 확고한 닻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신권 정원회가 되십시오.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여러분의 정원회로 데려오십시오. 정원회에서 여러분 삶에 변치 않는 토대가 될 형제애를 쌓으십시오. ■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재능 있는 지도자, 헌신적인 아버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론 래스번드는 자신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선교사 부름장을 열면서 이 열아홉 살짜리가 가졌던 유일한 질문은 어디에서 봉사하게 될 것인가였다.

“아버지는 독일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가셨습니다. 형도 독일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갔고요. 나중에 제 매형이 되신 분도 독일로 선교 사업을 가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래서 저도 독일로 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독일로 가는 대신, 론은 미국 뉴욕 시에 본부를 둔 동부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실망에 잠겨, 그는 부름장을 들고 침실로 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후, 경전을 펼쳐 아무 데나 읽기 시작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였다.

“보라, 또 바라보라, 나는 이곳에, 이 주변 지역에 나의 백성을 많이 가지고 있나니, 이 동쪽 땅에서 이 주변의 지역에 효과적인 문이 열리리라.

그러므로 나 주는 너희가 이곳에 오는 것을 용납하였나니, 이는 이와 같이 그 일이 여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게 필요하였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00:3~4; 강조체 추가)

곧바로, 성신은 론에게 동부 선교부로 가라는 그의 부름이 실수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처음에는 실망했다가, 주님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 그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성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성구를 통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중대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동부로 가는 선교 사업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으로 그를 데려다줄 여러 교회 부름 중의 첫 번째 부름이었다. 그리고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교사, 감독, 고등 평의원, 선교부 회장, 칠십인 정원회 일원, 칠십인 정원회 선임 회장,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름에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에 끊임없이 의지했다.

오른쪽 위: 1998년 뉴욕 시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맨 오른쪽: 누나 낸시 선들러, 어머니, 형들인 러셀과 닐과 함께한 래스번드 장로. 오른쪽: 일곱 살 때 부모님과 찍은 사진.



계시거나 앉아 계시게 내버려 두는 법이 없었어요. 늘 두 분 사이에 자신이 끼 있어야 했죠.”

론은 보통으로는 착한 소년이었지만, 그도 인정하듯이 말썽꾸러기 같은 면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몇 번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이셨던 어머니께 가서 ‘저 로니 래스번드는 감당하기

힘든 꼬마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큰 사랑을 보여 주시며 항상 반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하셨습니다.”²

론의 어린 시절은 와드 모임, 와드 파티, 와드 식사, 와드 스포츠 팀 등 교회에 집중되었다. 코튼우드 제1와드 집회소에서 바쁘지 않을 때면 그는 잡다한 일을 했는데, 스카우트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냈다. 집에서 보내는 가족들과의 시간은 경전 읽기, 게임, 그리고 집안일에 집중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일이 무엇인지 직접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일을 시키심으로써 그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론의 아버지는 빵 배달 트럭을 몰았는데, 매일 새벽 네 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레이스 옷을 입힌 도자기 인형을 만들어 팔았다.

론이 직업상의 책무와 교회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그의 천부적인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는 첫 번째 말씀에서, 래스번드 장로는 그의 조상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저는 복음 안에서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그분들 역시 여섯 세대에 걸쳐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¹

그의 어머니, 베르다 앤더슨 래스번드는 어린 론이 경전에 대한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이끌었다. 그의 아버지, 룰런 호킨스 래스번드는 근로의 미덕에 대한 본이 되었던 의로운 신권 소유자였다.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1951년 2월 6일에 태어난 로널드 에이(앤더슨) 래스번드는 자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자녀였다. 그의 부모는 서로를 만나기 전에 각각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래서 론은 배다른 두 명의 형과 누나까지 더해진 보호 아래에서 자랐다.

그의 누나 낸시 선들러는 이렇게 말한다. “론은 우리 부모님 두 분 모두를 닮은, 두 분만의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를 사랑했죠. 론은 엄마와 아빠가 단둘이 서





능력, 즉 이끌고 위임하고 완수하는 그의 능력은 어려서부터 유용하게 쓰였다.

그의 누나는 이렇게 회상한다. “론이 맡은 책임 중 하나는 잔디를 깎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론은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의 톱 소녀처럼,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기를 도와주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바깥을 내다보면,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대신해서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는 다른 친구가 깎고 있었어요. 그는 그저 현관에 앉아서 친구들이 자기 일을 대신 하는 동안 그들과 웃고 농담을 했죠.”

론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가족에게는 복음이 있었다. “돈이 많았던 적은 결코 없었지만, 그것이 제 행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론은 그렇게 회상한다.

믿음직한 친구들과 지도자들

론은 자라면서 좋은 친구들과 믿음직한 신권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라는 축복을 받았다. 그 중에는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한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도 포함되는데, 파우스트 회장은 론의 소년 시절 14년간 그의 스테이크 회장이었다. 론의 가족들은 파우스트 회장 및 그의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항상 저를 ‘내 코튼우드 마을 소년들’ 중 하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자라는 데 많은 영향을 주셨기 때문이죠”

론은 일단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항상

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의 스포츠 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지만, 평생 지속될 충실한 우정을 위해서는 시간을 냈다.

“전 항상 그를 있는 그대로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어린 시절의 친구인 크레이그 맥클리어리는 말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인다. “론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똑같은 짓을 하며 컸으니, 네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나도 거기 있을 거야.’”

론은 1970년대 초에 선교 사업을 떠났지만, 크레이그는 그해 가을 사냥철이 끝날 때까지 선교 사업을 연기하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그 때 론이 선교 사업을 하다가 그에게 전화를 했다.

맥클리어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교 사업을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저를 꾸짖더군요. 물론, 저는 더 미루지 않았습니다.”

론은 그의 선교 사업을 “굉장한” 경험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기적적이면서도 신앙을 고무시켜 주는 많은 경험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선교 사업은 제 영적인 인생에 중대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래스번드 장로 부부는 주님을 우선에 두었다. 1973년 9월 4일 결혼한 후(아래), 그들은 딸 넷과 아들 하나(위)를 두는 축복을 받았다. 반대쪽: 래스번드 장로의 전 사업 파트너이자 멘토였던 존 헌츠먼 일세는 래스번드 장로를 “극도의 충실함을 지닌 재능 있는 지도자.”라고 부른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론은 선교 사업 기간의 일부를 버뮤다 제도에서 보냈다. 그의 선교부 회장, 해롤드 니파이 윌킨슨은 거리상 버뮤다 제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어쩌다가 한 번씩만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견실한 선교사들”만 그곳으로 보냈다.

론은 이렇게 회상한다. “완전히 우리끼리만 있었지만, 회장님은 우리에게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에 충실했습니다.”

델타 파이의 “꿈에 그리던 소녀”

1972년에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론은 일자리를 찾고, 그해 가을 유타 대학에 등록했으며, 귀환 선교사 동아리인 델타 파이 카파에 들었다. 동아리 친목 활동에서 그는 멜라니 트위첼이라는 매력적인 아가씨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멜라니는 델타 파이가 뽑은 “꿈에 그리던 소녀” 중의 한 명이었는데, 동아리 친목 활동을 도와주고 있었다.

론처럼, 멜라니도 활동적인 후기 성도 가정 출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역 군 장교였으므로 가족들은 이사를 자주 해야 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잦은 이사가 교회에 빠지는 핑계가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멜라니는 론의 친절함과 정중함과 복음 지식에 감동을 받았다. “전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니까 그와 데이트해 보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라도 되고 싶어.’”

그들의 관계가 진전되자, 그녀가 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영이 확인해 주었다. 또한, 주님을 향한 론의 확고한 헌신 역시 영은 그녀에게 확증해 주었다. 곧 그들의 우정은 멜라니의 표현대로 “이야기 책에 나오는 동화 같은 로맨스”로 피어났다.

래스번드 장로는 그녀가 더할 나위 없는 자신의 반쪽이라고 말한다. “멜라니는 복음에 대한 헌신과 전통에서 전적으로 저와 동등합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때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1973년 9월 4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이후로, 그의 “사심 없는 영원한 동반자는 …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가 되도록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 저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내와 저희의 다섯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24명의 손주들은 사랑과 격려로 저를 지지해 줍니다.”³

“갑시다”

론은 기혼 학생 와드의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와드의 고등 평의회 고문인 존 헨즈먼 일세와 친해지게 되었다. 존 헨즈먼은 론이 정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즉시 감명을 받았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던 헨즈먼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대단한 지도력과 조직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대학생인데 정원회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니 비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몇 달 동안 론이 신권 의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존은 나중에 헨즈먼 화학 회사가 된 그의 회사에서 마케팅 분야 고위직에 자리가 났을 때, 그가 바라는 기술을 론이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 일자리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그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론은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멜라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는 않을 거요.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평생을 노력했고,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으니까.’”

멜라니는 론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일깨워 주었다.

“뭐가 걱정이예요?”

그녀가 물었다. “짐을 싸서 이사하는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그 일이라면 제 평생 해 온걸요. 매일 밤 당신 어머니께 전화하게 해 줄게요. 그러니 갑시다.”

론에 대해 가졌던 존 헨즈먼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 존의 멘토링을 받으며, 론은 성장하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을

거듭한 가운데 1986년에는 사장 겸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그는 회사 일로 국내와 국외를 두루 여행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말에는 집에 있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출장을 가게 될 때에는 가끔 일부 가족들을 동반하곤 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아빠에게서 받고 있다고 느꼈어요.”라고 멜라니는 말한다. 그는 가능할 때마다 자녀들의 활동이나 스포츠 행사에 참석했다. 네 딸 중의 하나인 제네사 맥퍼슨은 아버지의 교회 부름 때문에 보통은 일요일 교회 모임 동안 아버지와 같이 앉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빠가 우리와 함께 같은 건물에 참석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면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아빠 옆에 앉는가를 놓고 싸우곤 했어요. 저는





아빠 손을 잡으며 '아빠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좀 더 구주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게 기억나요. 그분은 항상 제 영웅이셨어요.”

론 부부의 아들인 크리스천은 “아빠와 아들만의 시간”에 대해 좋은 기억을 떠올린다. 가족들이 자주 이사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 가장 친한 친구셨어요.”라고 그는 말한다.—비록 승부욕이 좀 강하긴 했지만.

론은 크리스천과 농구공을 던지든, 딸들과 보드 게임을 하든,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과 낚시를 하든, 이기는 것을 좋아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크는 동안 아버지는 절대 우리가 쉽게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기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그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론의 가족들은 론이 교회 지도자로 봉사하는 가운데 사랑과 동정심을 보이고, 영의 느낌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주는 그의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론과 멜라니의 손자인 팩스틴이 태어난 후, 가족들은 론의 영적인 힘과 격려에 아주 많이 의지했다.

희귀한 유전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팩스틴은 여러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그 일은 가족들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시험했다. 래스번드 장로는 팩스틴의 출생에 뒤따른 여정을 “영원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교훈을 배우기 위한 시련의 도가니”라고 불렀다.⁴

팩스틴이 지상에서 지낸 삼 년 동안,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그 시기에, 래스번드 장로는 영적인 지주가 되어,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에 의지하도록 인도했다.

그의 새로운 부름이 발표되었을 때, 여러 가족과 친구들은 놀라지 않았다. “우리 중에서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사도로 지지받을 때 누구보다도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라고 크리스천은 말한다.

“가서 봉사하겠나이다”

1996년, 45세의 나이에 론이 뉴욕의 뉴욕 북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고대의 사도들처럼, “곧 [그의] 그물을 베[렸다].” (마태복음 4:20)

“부름을 받아들이는 데 일 초도 안 걸렸습니다.”라고 래스번드 장로는 말한다. 그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봉사하기 원하시면, 가서 봉사하겠나이다.”

론은 그가 직장 생활에서 배운 다음과 같은



왼쪽 맨 위: 2015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교회 회원들과 함께한 래스번드 부부. 위: 1996~1999년 뉴욕 시에서 선교부 회장일 때의 래스번드 장로 부부; 가족들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교훈”을 배우도록 도와준 그들의 손자 팩스틴과 함께;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성전의 정초식에서

위대한 교훈을 가지고 갔다. “사람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⁵ 그러한 지식과 연마된 지도력 기술을 가지고, 그는 주님의 왕국에서 전임으로 봉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론과 멜라니는 뉴욕 시에서의 선교 사업이 도전적이지만 활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론은 책임을 선교사들에게 빨리 위임하여 그들이 충실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강화하고 격려했다.

론과 멜라니가 그들의 선교 사업을 마친 후 8개월이 막 지난 2000년에, 론은 칠십인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다. 그의 준비와 경험, 그리고 많은 재능은 그 부름을 수행하는 가운데 교회를 축복하게 되었다.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그는 유럽 중부 지역 회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했으며, 39개의 나라에서 교회 일을 감독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북미 서부, 북서부, 그리고 세계의 유타 지역을 감리하고, 성전 부의 집행 책임자로 봉사하며,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하면서 십이사도와 긴밀히 일했을 때 그랬듯이, 그의 선임 사도들에게서 받는 계속되는 멘토링을 언제나 환영한다. 비록 40여 년 전에 대학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진지한 학생이다.

최근에, 래스밴드 장로는 “제가 십이사도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자가 되어 모든 면에서, 또 모든 경우에서 그들에게 배우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까?”라고 말했다.⁶

“그분들이 알았던 것을 저도 압니다”

래스밴드 장로의 사무실 벽에는 두 개의 그림이 걸려 있다. 하나는 1850년대에 덴마크에서 어떤 가족을 가르치고 있는 물론 선교사에 대한 그림이고, 나머지 하나는 영국 제도에 있는 한 우물 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 초기 선교사 댄 존스에 관한 그림이다. 이 그림들(오른쪽 위)을 볼 때마다 래스밴드 장로는 그의 조상들을 떠올린다.

“이런 초기 개척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치고, 자기의 후손들이 따를 유산을 남겼습니다.”⁷ 라고 그는 간증했다. 래스밴드 장로의 조상들이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관한 지식과 확실한 간증 때문이었으며, 래스밴드 장로가 이 새로운 부름을 받을 자질을 갖추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그러한 지식과 확고한 간증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의 새 부름에는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무척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제 부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교리와 성약 107:23)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⁸

개척자의 후손으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분들이 느꼈던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분들이 알았던 것을 저도 압니다.”⁹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장로는 주님의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개척자들의 모범을 따르고 그들의 유산을 존중한다. 개척자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바랐던 것은 그런 래스밴드 장로의 삶과 가르침과 봉사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

주

1.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9쪽.
2. Ronald A. Rasband, “Friend to Friend: Golden Nuggets,” *Friend*, Oct. 2002, 8.
3.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89쪽.
4.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특별한 교훈,”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0쪽.
5.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기자 회견, 2015년 10월 3일.
6. Ronald A. Rasband, testimony, Priesthood and Family Department devotional, Dec. 1, 2015.
7.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89쪽.
8. Ronald A. Rasband, testimony.
9. Ronald A. Rasband, Pioneer Day address, Tabernacle, Salt Lake City, July 24, 2007.

나는 오래전 저활동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를 알던 한 회원은
내가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패트릭 제이 크로닌 3세

신 권 집행 위원회 모임을 하는 동안, 전임 선교사들이
우리 와드에 기록이 없는 한 회원을 만났다고 했다.
나는 즉시 그 자매의 이름을 알아봤고, 그 자매와
내가 오래전 같은 와드에 있었다고 말했다.

선교사 중 한 명이 “맞아요, 감독님. 그 자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감독으로 부름을 받으셨다고
하니 좀 놀라시던데요?”라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선교사들은 그 자매가 아주 놀라면서 “그 사람이
감독이라고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그 자매님은
나를 30년 전의, 지금의 나와는 아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있었던 일을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족이 교회 회원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우리 와드의
많은 회원들을 20년 이상 알고 지냈고 그동안 지부 회장과
감독으로서 봉사했지만, 아무도 30년 전의 나를 알지는 못했다.
회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와드 회원들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내 삶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가족은 1979년 봄에 교회를 소개받았고, 나는 그곳이

우리 가족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우리는
6월에 침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우리 모두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나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교회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되었고, 다시 예전의 습관들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복음과
회복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해 본 적은 결코 없었다. 하지만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이 나에게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계속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1982년에는 한
번도 신앙 안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던 내 아내가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자란 곳인 미국 일리노이 주로 다시
돌아갔다.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족을 잃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나는 실제로 계시는지조차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
그분이 계시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나는 3개월 동안 충실하게 기도를 드렸다.
어느 이른 아침, 기도를 하는 동안, 큰 위안의 느낌이 나를
감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시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바로 그날 저녁, 나는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 서명이
필요해서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대화하던

그 사람이

감독이라고요?



도중, 갑자기 아내가 말했다. “당신 뭔가 아주 달라진 것 같아요. 당신이 이제 더는 술을 안 마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서류들은 그냥 찢어버려야겠어요.” 우리는 다시 합쳤고, 2년 후 셋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 후에 내가 교회에서 충실한 활동 회원으로 돌아왔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꽤 고집이 셨다. 나는 잠시 동안만 교회에 나갔다. 장로 정원회 교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말이다. 나는 가르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곧 다시 저활동이 되었다.

1991년에 우리는 작은 지부로 이사하게 되었다. 막내아들의 여덟 번째 생일을 몇 달 앞두고, 초등학교 회장이었던 아내는 아이에게 누구에게 침례를 받고 싶은지 물었다. 아이는 당연히 아빠에게서 침례를 받고 싶다고 했다. 아내는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아들은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빠를 활동적인 회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우리 아들은 꽤 끈질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스카우트 지도자로 봉사하게 되었고, 결국 막내아들에게 침례와 확인을 해 주었다.

내가 다시 활동화되고 난 후 8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우리 가족은 시카고

일리노이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나는 다시 한 번 장로 정원회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만두지 않았다. 나는 그 후 지부 회장단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고, 5개월이 지난 후에는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내가 부름을 받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내가 지부 회장이라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복음 안에서 발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것은 단지 구주와 그분의 속죄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나는 나에게 경이로운 모범이 되어 준 나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 정원회 지도자, 감독, 그리고 다른 충실한 회원들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주님과 성도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였다. 나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축복을 받았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경전 번역:

우리의 **마음**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

영 어 경전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몸담았던 이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생소하지 않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한 아르메니아 청년이 최근에서야 자국어로 번역된 물문경 한 권을 들고 번역 과정을 도왔던 팀의 한 명에게 다가가 말한다. “고맙습니다. “저는 물문경을 영어로 읽었었죠. 러시아어로도 읽고, 우크라이나어로 읽은 적도 있고요. 하지만 아르메니아어로 읽고 나서야 물문경의 참 뜻을 알게 되었죠. 아르메니아어로 읽으니 드디어 그 의미를 알겠어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처소라고 할 때, 복음 안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친근함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다. 우리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신의 자양분을 얻는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언어로 사랑하는 이들과 대화도 나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언어이다. 복음이 도달해야 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므로, 우리의 마음의 언어로 경전을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리와 성약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경전 번역 작업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드러난다.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경전은 우리의
모국어, 즉 우리의
마음의 언어로
읽을 때 더욱
강렬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완역된 물문경은 89개 언어로 출판되었고
물문경에서 선정한 일부분은 다른 21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있다. 이 경전에서 주님은 제일회장단이
지닌 신권 열쇠를 통해 그 사실을
나타내신다. “주의 팔이 권능 가운데
드러나 민족들[에게] … 구원의 복음을
확신시킬 날이 임하느니라.

무릇 그날에 그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그들 위에 내리는 보혜사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에 성임된 자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0:10~11)

교회 본부에서 경전 번역 팀으로
일했던 짐 조웰은, 마음의 언어로 번역된
경전이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지에
관한 일화를 들려준다.

“아프리카에 있는 세소토라는 나라의
언어인 세소토어로 물문경을 번역할
때였어요. 우리는 번역 팀의 작업을
평가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요. 이 과제
책임자인 래리 폴리는 유타 주립 대학교
대학원생인 레소토 출신의 교회 회원을
찾았어요. 레소토에서는 영어로 정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이 여성과 그녀의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로
공부를 했지만, 가정에서는 세소토어를
썼지요.

그분은 번역 작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보내 드린 번역 내용에 대한
그분의 평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우리는 어휘나 언어 구조에
관해 정기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보내곤
했는데 그분은 유익한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질문과 관련이
없는 많은 구절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시된 구절에 관해 여쭙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그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구절인데, 영어로 읽었을
때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예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표시를 해 두었죠.’”

경전 번역의 본보기

구약 성서의 일부를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시작된 성경
번역의 역사는 길고도 흥미진진하다.
이후, 성경은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다른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¹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 해당 언어를

**“무릇 …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은 …
이 권능에 성임된 자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0:11)**



경전 번역 과정

번역 승인

- 어떤 언어를 쓰는 교회 회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본적인 교회 자료가 이미 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 지역 회장단이 경전 번역을 요청한다.
- 십이사도 정원화와 제일회장단의 구성원을 포함한 교회 본부의 몇몇 위원회에서 그 요청을 검토한다.

번역 단계

도입 단계

- 이미 나온 성경 번역본 중에서 교회에서 사용할 성경 · 판을 선정한다.
- 기본 자료들이 먼저 번역된다(교회 이름, 성찬 축복문, 침례 기도, 신앙개조와 기본적인 교리를 비롯한) 복음 원리,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 팸플릿, LDS.org 웹페이지.
- 연차 대회 말씀이 해당 언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1단계

-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약 10년이 소요되는 작업)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선별된 찬송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등의 기초 자료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권위를 인정한 번역판을 채택하여 사용한다.²

따라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전 번역은 (가장 먼저 번역되는)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대부분이다. 이 책들이 번역된 언어는 영어, 곧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언어이자 그의 마음의 언어였던 영어이다. 영어가 아닌 언어의 경전 번역 과정은 교회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가 몰몬경을 영어로 번역하던 것과 그 과정이 꽤 비슷하기 때문이다.

농장에서 자란 조셉 스미스는 보잘것없고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일을 완수하는 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질과 잠재력이 있었다. 참으로 조셉과 그의 가족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준비되고 지정된 사람들이었다.³

조셉은 또한 니파이인의 기록을 번역하면서 하늘과 지상 양쪽의 도움을 받았다.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기록을 가져오도록 허락하기에 앞서, 4년 동안 해마다 그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모로나이가 선지자에게 가르친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하나, 조셉은 모로나이의 방문으로 이후의 과업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준비되었다.⁴

주님께서는 잊힌 언어를 번역할 수단으로 미리 “해석기”도 마련하셨다. 금속 테두리가 둘러싸고 묘사된 두 개의 투명한 돌과 선견자의 돌이라고 불린 이와 비슷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 선지자는 니파이인의 기록을 영어로

번역했다. 선지자는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다고 간증했다.⁵

조셉은 하늘의 도움과 더불어 서기로써 필사본을 만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나중에 조판, 인쇄, 대금 지불 및 배포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셉이 번역 작업에 준비되고 도움을 받았듯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경전 번역 업무에 선정된 이들을 예비하시고, 그 일에 선정된 이들은 하늘과 지상 양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게시가 따르는 작업

힘겨운 번역 과정에는 아마도 “평의회를 통해 주어지는 계시”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미친다. 번역사로 선정된 두세 명의 사람이 다른 이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한다. 그들에게는 교회 본부 책임자, 해당 지역 언어 검토자, 참고용 어휘 사전,⁶ 번역 안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며, 제일회장단에 이르기까지 중무 지도자의 지원이 전 방위로 확대된다.(도표 참조) 제일회장단이 최종적으로 번역을 승인하면 작업은 조판을 거쳐 인쇄, 배부된다. 아울러, 디지털 형태로도 준비되어 LDS.org 및 복음 자료실 앱에 게재된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진지하고도 영감 어린 노력이다. 여기에는 번역 내용의 질과 그 내용이 실릴 외형의 질을 위해 헌신적인 주의력이 수반된다. 번역은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치는데, 특히 주님의 승인을 구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승인을 얻어야만 번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설사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한 방식과 똑같은 계시가 따르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 과정을 명확하게 인도하신다.

그렇다고 처음 완성된 번역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간혹 경전을 연구하는 이들이 이후에 추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법과 어휘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거나 조판 또는 철자 오류 등을 찾아내기도 한다. 흔하지는 않으나 교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은 제일회장단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심

주님께서 이 번역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도 뒷받침해 주신다. 교회 본부의 번역 팀은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한다.

많은 예 중 하나로, “맘”(과테말라에서 쓰이는 언어로서 마야어에서 파생된 언어)으로 교회 자료를 번역하고 기록할 번역사가 필요했는데, 과테말라로 부름받은 초기 선교사 중에 맘어를 사용하는 할아버지를 둔 장로가 있었다. 도시에서 자란 그 선교사는 스페인어만 사용했으나, 할아버지께서 밤마다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맘 언어를 가르쳐 주었다. 이 젊은 장로는 교회의 맘어 전문 번역사가 되었다.

종종 번역 작업은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통해 완성되기도 한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어떤 번역사는 무료로 봉사하고, 어떤 이들은 번역에 온전히 시간을 바치도록 급여를 받기도 한다.

우르두어 번역사가 된 사람들 중 한 명은 교사로 일하다가 파키스탄에서 교회에 개종했다. 그 결과로 그는 직업과 일하던 학교에서 제공한 집, 그리고 자녀의 교육 기회마저 잃고 말았다. 교회 번역 책임자는 그에게 번역사로 봉사할 것을 제안하고 약간의 보수를 제공했다. 번역사로 일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책임자를 찾아와 새 볼펜을 사줄 수 있느냐고 축스러위하며 물었다. 그가 쓰던 볼펜은 잉크가 닳아버린 티였다. 그제서야 책임자는 사무 착오로 번역사가 받아야 할 급여의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문제를 바로잡았다.

그렇지만 조셉 스미스가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듯이, 주님께서 번역사들을 축복해 주신다. 일례로, 라트비아어 경전 번역사는 러시아에서 법학을 공부한 변호사였다. 그는 러시아에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여 개종했다. 라트비아로 돌아간 그는 사업체를 설립하려 했다. 아울러 지부 회장으로 봉사 중이기도 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었지만, 교회는 영어 능력을 갖춘 그가 필요했다.

그는 그 요청에 대해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를 받아들이면 교회 대표자에게 말했듯이,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기도를 마친 그는 그 요청을 수락하기로

2단계

- 리아호나 잡지,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지도서, 일요일 공과 교재, 찬송가 및 어린이 노래책, 성전 및 가족 역사 자료, 그리고 스테이크나 지역 방송 통역과 같은 기타 여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핵심 작업 그룹

번역 팀

- 복음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을 지니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두세 명의 교회 회원.
- 구절별로 도움을 주는 번역 지침과 어휘 사전, 그리고 교회 본부 번역 책임자의 도움을 받음

교회 검토 위원회

- 3~5명의 남녀로 이루어진 지역 내 교회 지도자
- 번역의 가독성과 교리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름받고 성별된다.
- 변경 사항이 번역 지침과 맞지 않고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문구는 변경되지 않는다.

회원 검토자

- 지역 내 교회 회원도 번역 검토에 참여한다.
- 이들은 문구의 명확성이나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다.
- 명확한 번역은 성신이 가르침의 참됨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경전 번역은 머리와 마음, 정신적인 기술과 영적인 통찰이 모두 수반되는 과정이다.

결심했다. 대신, 힘들고 영적인 요구가 따르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일을 해내도록 방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했다.

그는 매일 법률 사무소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하여 그 시간을 몰몬경 번역에 사용했다. 보통 그 과업에는 5년이 걸리지만 그는 이보다 훨씬 빨리 작업을 완료했다. 실제로 이는 조셉 스미스가

대략 60일을 걸려 몰몬경을 번역한 이래 가장 빠르게 마친 번역들 중 하나이다.

경전 번역에 미치는 주님의 손길을 보여 주는 것과 관련 있는 경험담은 더 많이 있다. 그러한 사례들은 하나같이 이 일이 주님의 사업이며 그분이 깊이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하도록 사람들을 예비하신다. 일을 서두르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신다. 아울러 그 일을 하는 내내 영감을 주고 축복해 주신다.

그 결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언어로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풍성해진 이 세상이다. ■

주

1. 8부 시리즈 기사 참조, "How the Bible Came to Be", 리넷 에이치, *Ensign*, 1982년 1월호~9월호.
2. 일레로, mormonnewsroom.org 에서 "Church Edition of Spanish Bible Now Published" 기사 참조.
3. 매튜 에스 홀랜드, "팔마이라로 가는 길", *리아호나*, 2015년 6월호, 14~19쪽 참조.
4. Kent P. Jackson, "Moroni's Message to Joseph Smith", *Ensign*, 1990년 8월호, 12~16쪽 참조.
5. 조셉 스미스, 몰몬경 소개.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 번역에 대해 더욱 폭넓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topics.lds.org 복음 주제에서 "몰몬경 번역" 참조.
6. 어휘 사전에는 번역사가 단어의 의미를 더욱 잘 파악하도록 영어 경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이따금 단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 번역사는 문장의 맥락이나 영감,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위한 공동 작업에 의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의미에 관한 문제는 제일회장단만이 해결하기도 한다.

주님의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이 그분의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주님은 그 과정 내내 번역자들이 일을 서두르는 데 필요한 도구를 주어 이들을 준비시키며, 영감과 축복을 주신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장년(長年) 선교사로

장년 부부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연 세가 60, 70대에 이른 분들이 어떤 일을 잊어버릴때, 그 깜빡하는 순간을 농담삼아 “황혼의 순간”이라 부르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는 다른 황혼의 순간, 다시 말해 정말 감명 깊은 순간, 영원한 추억으로 남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은 장년 선교사 부부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잊지 못할 순간에, 그분들이 깨닫게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 쌓아 온 경험이 있어 이를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재능, 노련미, 복음에 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다.
- 그들의 모범이 자녀와 손자녀에게 축복이 된다.
-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많은 이들과 견고한 우정을 쌓게 된다.
- 결혼 관계가 매일 더욱 강화된다.
-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는 감미롭다.

만들어 가는 순간 순간

장년 부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러한 순간을 맞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칠레에서 봉사하고 있던 장년 선교사 부부가 어떤 일을 해내었는지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들려 주신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한 젊은 장로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선교부 회장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선교사를 바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홀란드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다정하고 [성숙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젊은 장로를 방문하여 세심하게 돌봐 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선교부 회장이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선교부에는 훌륭한 젊은 선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미혼인 선교사 중에 그 장로에게 이 선교사 부부처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¹

그 순간 그들이 발휘한 노련미란 그저 측은한 마음을 필요한 순간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말을 하는 것 외에는 어떤 말을 할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자녀의 생일이나 자녀 축복이 중요한 일이지는 했지만, 그런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그분의 도구가 되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대표하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봉사는 안락함과 거리가 먼 일입니다.

사실, 집을 떠나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장년 선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 브리검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도 집을 떠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녀와 손자녀가 있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또한 사랑했으며 주님께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 설립을 도왔던 이 충실한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봉사해야 하는 시기에 이를 회피하고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자택에서 지내면서 봉사하는 편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세 슈마허 넬슨(저와 친척은 아닙니다) 자매는 뇌졸중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자, 남편인 돈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려던 일생의 소원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웃 사람이 감독의 창고에서 일하는 교회 봉사 선교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 넬슨 부부는 감독의 창고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추천서를 작성했고, 집 근처 감독의 창고에서 일주일에 두 번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아,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라고 넬슨 자매가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제게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다지 필요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부에 장년 선교사 부부가 추가로 더 오는 것을 마다할 선교부 회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장년 선교사는 젊은 장로와 자매 선교사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원해 줍니다. 또, 경험이 풍부한 교회 회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회원이 된 지 몇 해 되지 않은 교회 지도자에게 어떤 의미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때때로, 장년 선교사 부부는 감독과 지부 회장이 드린 기도의 응답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선교부 회장에게 선교부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년 선교사 부부를 찾아보라고 권고합니다. 감독은 봉사할 수 있는 부부를 찾아내야 합니다. LDS.org에는 장년 선교사 부부가 할 수 있는 봉사 기회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부가 무릎을 꿇고 선교사로 함께



한국 서울에서 한 장년 선교사 부부가 함께 봉사하는 감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봉사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자격 요건보다도,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리와 성약 4:3 참조)

장년 선교사가 이루어 낸 일에 찬사를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점은 봉사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연령이나 건강 상태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돌봐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으로 불타오른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팔다리가 되어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봉사 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년 부부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시든 어디에 계시든, 부부가 함께 장년 선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이 훌륭한 기회에 대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

주
1. Jeffrey R. Holland in Joseph Walker, “Elder Jeffrey Holland: LDS Church Desperately Needs More Senior Missionaries,” *Deseret News*, Sept. 14, 2011, 3.



맨 위: 맬로즈 부부는 정기적으로 로비슨 회장을 만나 봉사재능을 활용할 방안을 의논한다. 위: 가나 아크라에 있는 훈련원의 젊은 선교사들은 맬로즈 장로 부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서 봉사하는 두 번째 부모를 갖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집에서나 집을 떠나서나

집에서 봉사하거나 집을 떠나서 봉사하거나, 장년 선교사 부부들은 와드와 지부, 선교부 사무실, 방문자 센터, 성전, 도심지의 선교부, 취업 자원 센터, 교회 교육 기구, 홍보부 등에 “와서 돕고” 있으며, 의료 업무, 자립 프로그램, 중독 회복 프로그램, 가족 역사, 기록 보관, 인도주의 봉사활동 등의 일도 하고 있다.



장년 선교사:

여러분이 필요하며
여러분은 축복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장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유롭고
경제적이며 즐거운
일일지도 모른다.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미국 워싱턴의 제럴드와 로나 맴로즈는 전에도 이 질문에 답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선교부 회장이 된 전임 감독이 함께 서인도 제도에서 봉사할 수 있는지 묻자, 예라고 답했었다.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이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의 컴퓨터 및 인적 자원부에서 일하며 봉사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주자, 다시 예라고 답했다.

전임 감독이자 선교부 회장이었던 리드 로비슨이 이번에는 가나 아크라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 원장이 되어 다시 전화를 걸었고, 맴로즈 부부에게 다시 한 번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맴로즈 장로는 말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예라고 답하고 추천서를 작성했으며, 부름을 받고 곧 가나로 갔다.

부부가 함께하는 봉사

맴로즈 부부의 경험에는 장년 부부 선교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원리가 드러난다.

- 선교 사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교회 회장이 장년 부부가 집에 머무르면서, 혹은 집을 떠나서 봉사하도록 부른다. (2)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 8시간에서 32시간까지 시간제로

일할 교회 봉사 선교사 부부를 부른다. 그들은 대개 자신의 지역에 머무르며 봉사하지만 때로는 집을 떠나서 봉사하기도 한다.

- 선교부 회장은 선교부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부를 찾도록 권고받으며, 부부는 원하는 바를 제시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다고 부부들이 선교사로서 자신들의 임무를 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름은 부름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장년 부부들이 어떻게 봉사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합니다.”¹
- 선교부 회장은 부부들과 함께 그들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방안을 상의한다. 로비슨 회장은 말한다. “장년 부부가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열정이 있는 분야와, 이바지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로 자질이 있는 분야에서 모두 일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비슨 회장은 맴로즈 장로가 프랑스어를 하는데, 많은 아프리카인이 프랑스어를 하므로 그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비슨 회장은 말한다. “저는



여건을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장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 여건을 마련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주님의 사업에 전념하여 봉사할 때 얻게 되는 감미로운 영광과 만족감을 누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6쪽.



맬로즈 장로님이 여행 업무를 맡아서 비자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곳에 도착하자, 저는 그 일은 그가 정말 흥미를 느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가 가진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시간을 아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맬로즈 장로는 선교사 중에도 특히 프랑스어를 하는 선교사들이 가족을 위해 이름을 준비하고 성전 사업을 하도록 돕는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맬로즈 자매는 선교부 의사 및 간호사와 일하는 임무를 맡았다.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맬로즈 부부처럼, 많은 부부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길을 예비하심을 알게 된다. 필리핀 카비테 주 카위트의 엘빈과 코라손 리에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리에타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희는 봉사하기로 결정하기 2년 전에 가족이 꾸려 온 사업을 위해 탄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대학을 졸업해서 저 대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업상 생기는 문제는 누가 처리하며, 또 고객들은 그런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리에타 자매도 노모를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다. “떠나 있는 동안 어머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감독을 비롯하여 최근에 다바오에서 봉사했던 부부와 그 문제를 상의했다. “모두들 가정사와 가족들, 그리고 선교 사업 비용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부부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굳게 간증했어요.” 리에타 자매는 말한다.

리에타 장로는 말한다. “인도를 구하자 두려워하던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은 잘 진행되었고, 고객들도

기뻐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가 되어 병든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리에타 부부는 현재 필리핀 카가안데오로 선교부에서 회원 및 지도자 지원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

더러 신체적인 제약에 관해 궁금해하는 부부도 있지만, 미국 유타 주의 키스와 제닐린 마우어먼은 달랐다. 오래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한 지 4개월 뒤, 키스는 군대에 선발되어 전투에 투입되었다. 공수부대 지휘관이던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행군하던 중에 지뢰를 밟았다. 그리고 두 다리를 잃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제닐린은 한달음에 곁으로 달려왔다.

키스는 이렇게 말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원한 결혼을 했으니까요. 아내는 쭉 저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저를 지탱해 주지요.”

마우어먼 자매가 은퇴하자 그들은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마우어먼 장로가 두 다리를 잃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할 수 없는 일은 늘 있는걸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저희에게 맞는 곳이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추천서를 작성하면서 그는 군 복무 경험을 나타내는 칸에 표시했다. 곧 그들은 교회의 군 관련 부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제가 군사 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이 있으니 저희 부부를 군 관련 선교사로 추천해도 될지 허락을 구하더군요.”

마우어먼 부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군사 기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마우어먼 장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정문에 ‘포트

브래그, 공군 본부'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초병이 '필승!'이란 공군 구호로 저희를 맞아 주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듣고 처음 들어 보는 말이었습니다. 포트 브래그에는 처음이었지만 고향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꼭 맞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저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우어먼 자매는 말한다. “저희는 자립과 회복력, 그리고 결혼 생활 강화에 대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군인들과 그 배우자들이 저희를 보며, '두 분이 하실 수 있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

롬렐 자매는 포르투갈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덕에 롬렐 장로는 포르투갈어 실력을 되찾았고, 롬렐 자매도 실력이 늘어 갔다. 우쿨렐레도 그랬다

“정말로 우쿨렐레를 가져갈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롬렐 장로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영감을 얻었죠. 그걸로 한 일을 보면 놀라워요. 구도자를 가르치고 저활동 회원을 활동화하고 우정 증진을 할 때, 사람들과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쿨렐레를 사용하면 재미있어요. 저희는 언어를 배우고 찬송가는 강한 영을 불러오죠.”

그녀는 포르투갈어 실력은 미숙하지만, 음악만큼은 이미



리에타 장로 부부는 경제적인 걱정을 이겨 내고, 자국의 필리핀에서 봉사하고 있다.



군 관련 부서에서 봉사하는 일은 마우어먼 부부에게 꼭 맞는 일이다. “고향 집에 온 것 같아요.”라고 그들은 말한다.



롬렐 부부는 우쿨렐레를 가져가도록 영감을 받았고, 그들은 가정을 방문하고 찬송가를 부를 때 우쿨렐레로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어를 나눈다.

믿어요.’라고 말하더군요.”

마우어먼 부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 덕에 다시 봉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요즘 부부는 오렘에 있는 집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매주 두 번씩 약 64km를 오가며 교회 군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봉사한다. 그들은 또한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장년 선교사 부부들을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거의 모든 그룹에 난관을 이겨 내고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한다.

만국 공통어

브라질 쿠이아바 선교부로 부름받은 유타 주의 랜디와 루 앨런 롬렐은 걱정이 있었다. 롬렐 장로는 젊었을 때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했지만 포르투갈어를 다 잊어버린 상태였으며,

능숙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지요. 설령 방문하는 동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면 서로 가까워져요.” 학교에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관해 전혀 달라는 초대를 받아 롬렐 부부는 우쿨렐레에 맞추어 감사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롬렐 자매는 교회에서 찬송가 반주를 할 때는 좀 더 전통적인 악기인 피아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포르투갈어는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말한다. “유창하지 못해도 몇 마디만 배우면 도움이 돼요. 그냥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지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어려워하지 말고 영에 의지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영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이다.



“주 뜻대로 되오리다”

“장년 선교사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항상 사랑받는 찬송가인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찬송가 146장)과 그 찬송가가 전하는 메시지인 ‘주 뜻대로 되오리다’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부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장년 부부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몹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한 편리하게 선교사로 나가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시대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Deseret News*, Sept. 14, 2011.

가정에 머물며 봉사한다는 것

유타 주의 폴과 마 진 루이스는 벌써 총 세 번(뉴욕 팔마이라 성전, 중국 홍콩 성전, 그리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의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이나 선교 사업을 했다. 그들은 또 다른 선교 사업을 준비하던 중에 스테이크 회장에게서 “바로 여기 우리 스테이크에서 봉사하시며 이 지역 선교부를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루이스 자매는 말한다. “여기 새로 왔는데

가족에게 생기는 일을 놓치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저희는 저희 집에 살면서 저희 차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의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가족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저희는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받는 축복

반면, 같은 스테이크 출신의 질과 켄트 소렌슨은 가족을 강화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집을 떠나서 봉사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루이스 부부는 자택에서 봉사하며 자신들이 속한 스테이크의 전임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소렌슨 부부는 쿡 제도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작은 돌맹이를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바위처럼 굳건하게” 남아 있도록 상기해 준다.

정말 멋진 기회였어요. 저희는 젊은 장로 및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하고 선교부 회장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구역 및 지역 모임에 가고 와드 선교 책임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구도자와 저활동 회원을 방문하기도 한다.

루이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 사업이 아니었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도요. 그들이 돌아와서 의식을 받고 성전에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루이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부부가 선교 사업을 생각할 때 집과 차는 어떻게 하나,

소렌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부부들이 선교 사업을 가지 못하는 이유로 드는 것들은 이를테면, 손주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 자녀들, 임신 중인 딸들, 연로하신 부모 등입니다. 가족이 최우선이니깐 매일 그들이 보고 싶죠. 그렇지만 선교 사업을 가면 선교 사업도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지요.”

소렌슨 장로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제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이 많아서 항상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렌슨 부부가 선교사 여정을 시작한 것은 3년 전 그들의 감독이 선교 사업을 고려 중인 부부들을 위해 매달 노년의 모임을 주최하도록

요청하면서였다. “그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저희도 가야 했어요!” 그들은 쿡 제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곳은 질의 조부모가 50년 전에 봉사한 곳이었다.

현재 그들은 여러 의무 중에도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요청을 받았다.

소렌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는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작은 돌맹이를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위처럼 굳건하게 남아 있으라고 격려하지요.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바위처럼 굳건하게!’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부부들은 함께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더불어 그들의 결혼을 강화하고,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데려다준다고 말한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나 교회 봉사 선교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부부들은 모두 로비슨 회장이 제럴드와 로나 맴로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것이다. “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든지 이 약속은 확고하다고 말해 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이바지할 수 있으며,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LDS Church Desperately Needs More Senior Missionaries”, *Deseret News*, Sept. 14, 2011, deseretnews.com.


봉사할 수 있는 많은 방법

lds.org/callings/missionary에서 현재 열려 있는 선교 사업 기회들을 살펴보고, 현재 봉사 중인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 보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장년 부부의 선교 사업

유연한 방침 덕에 부부가 봉사하는 것이 더 간단해졌다.

- 교회 봉사 선교사 부부는 자택에 머물며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다.
- 부부는 6개월, 12개월, 18개월 혹은 23개월 동안 봉사할 수 있다. 여행 경비를 부담하면 18개월 이하로 외국에서 봉사할 수 있다.
- 부부 선교사는 중요한 가족 행사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단기 휴가—보통 7일에서 10일 이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다.
- 주거 비용은 정해진 상한선까지만 부담한다. 부부들은 임대, 공과금, 비품을 포함하는 주거비를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 주거지는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다. 선교부나 지역 사무실에서는 깨끗하고, 적절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으며, 경제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고 있다.
- 봉사 시간과 일정은 더 수월하다. 부부들은 젊은 독신 선교사들의 업무 시간 및 활동 일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다. 부부들은 젊은 독신 선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더 자주 가족과 연락할 수 있다.



가정이
외설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아내와 남편
모두 치유가 필요하다

남편이 외설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남편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구주의 치유 권능이 미칠 수 있음을 나는 직접 보았다.



익명

감 독이 되고 반년 동안, 외설물을 보는 문제로 힘들어 하는 남편 때문에, 와드의 여러 부부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최근이야 그 엄청난 비밀을 알고서 큰 충격에 휩싸인 아내가 있었는가 하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그 사실을 눈치챈 아내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을] 단단히 결박하려는 ... 사슬을 떨쳐 버리[도록]”(니파이후서 9:45) 세심하게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부들 모두에게 연민을 느꼈고, 구주가 지니신 구속의 권능을 느꼈다.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영을 느꼈던 것은 그 아내들을 만날 때였던 것 같다. 막 생긴 상처든 수년 동안 드러나 있던 상처든, 자매들은 하나같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남편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나 말고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 상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와 같은 질문에서 비롯된 깊은 영적 상처를 감내하고 있었다.

감독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남편이니 구주의 치유 권능을 얻을 열쇠가 가장 필요한 사람도 남편이라고 여기기가 쉽지만, 나는 죄와 강박적인 충동에서 치유되어야 할 남편만큼이나 아내도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지자 야콥은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 남성들을 꾸짖으며, “[아내들 중 많은 이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고 순결하며 섬세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야콥서 2:7)라고 니파이 백성에게 일렀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마음 고운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너희의 자녀들 앞에 보인 너희의 나쁜 본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의 신뢰를 잃었나니, 그들의 마음의 흐느낌이 너희를 고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느니라”(야콥서 2:35)라고 전했다. 나는 이 흐느낌을 눈앞에서 보았다. 그 눈물은 단지 남편이 외설물을 보았다는 데서 오는 깊은 배신감에서만 아니라, 종종 내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나타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비하 발언이나 무례한 행동이 그 원인이었다. 사실, 흔히 남자는 습관이 드러나면 아내가 했던, 혹은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일을 구실로 자신의 행동을 아내 탓으로 돌린다. 애석하게도 아내가 그 말을 받아들기 시작하여 이러한 비난을 믿어 버리게 되는 것도 흔한 일이다.

한번은 그런 부부 한 쌍이 감독실로 찾아왔다. 청소년 시절부터 남편을 괴롭혀 온, 남편의 외설물 이용 습관이 밝혀진 지 며칠 되지 않아서였다. 아내는 201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가 전한 “외설물로부터의

보호—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가정”이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상호부조회 공과를 듣던 중, 자신에 대한 남편의 비판적인 행동 가운데서 교사가 설명하는 외설물 이용자의 성향을 상당수 발견하게 되었다. 공과를 듣고 난 아내가 남편을 마주하고 물어보자, 그는 오랜 세월 감추어 왔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이미 조각날 대로 조각난 그녀의 자존심에 이제 건잡을 수 없는 분노가 더해졌다. 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도무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나는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시작 단계의 조언을 준 뒤, 다음에 다시 와서 한 사람씩 따로 나를 만날 것을 권유했다.

나는 간절한 기도로 이 부부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LDS.org에 실린, 회원들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신권 지도자들이 도움 방법

외 설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회원의 배우자를 지도자가 도움 때, 지도자가 자기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그 배우자에게 확신을 주려는 노력은 어떤 제언만큼이나 중요하다. 회원들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에 나오는 다음의 제언들을 생각해 본다.(ministering.ld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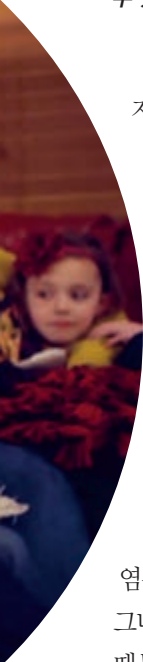
- 정기적으로 만나 도움을 제공합니다.
- 외설물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개인적인 치유를 베푸실 수 있는 구주의 능력을 강조합니다.(앨마서 7:11 및 마태복음 11:28~30 참조)
- 적절하다면 그 개인에게 중독 회복 프로그램, 혹은 이와 유사한 지원 활동을 찾아서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지원 모임에 참여하라고 권유합니다
- 배우자인 그 혹은 그녀가 가정 및 인간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세울 방법에 관한 영감을 직접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 혹은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외설물을 사용하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의 배우자를 지원하도록 돕습니다.
- overcomingpornography.org 와 addictionrecovery.lds.org 에서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자료를 살펴봅니다.(특히 “배우자와 가족” 섹션)
- 외설물 사용자의 배우자가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도록 소개할 것을 고려해 봅니다. 복음 원리에 맞추어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자원을 찾습니다.



하단 케리는 남편이 외설물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희망과 치유의 길을 찾았다. overcomingpornography.org 에서 케리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자료에 있는 제언들도 살펴보았다. 특히 외설물을 보는 배우자를 위한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녀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녀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그녀에게는 그녀의 배우자[의] ... 외설물 사용이나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학대를 견[더야만 하는 것]도 ...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이 자매를 만날 때 이 제언을 염두에 두었으며, 더불어 남편의 행동은 그녀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즉 아내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다.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인 그녀의 얼굴에서 안도와 위안의 표정이 변지는 것을 보았고, 그 말이 정말로 참되다고 확인해 주는 영을 느꼈다. 접견이 끝나 갈 무렵, 그녀는 내게 신권 축복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이 일을 비밀로 하고 싶어 했기에, 그녀에게는 그런 축복을 부탁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치유 과정을 돕고자 남편에게는 지역의 후기 성도 중독 회복 그룹에 참여하도록 권유했고, 아내에게는 그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그룹에 참여해 보라고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모임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는 다른 자매들을 만나며 위안을 얻었으며, 같은 종류의 시련을 겪었으나 함께

이겨 낸 부부들을 보며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이 부부를 처음 만난 지도 이제 몇 달이 지났다. 그간 솔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그들에 대한 내 애정과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물론 그들이 가야 할 길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매달 육욕과 외설물을 멀리하고 있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눈에 띄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해 가고 있는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기쁨을 느낀다.

최근에 그 부부와 접견을 하면서는, 초기에 보이던 괴로움과 눈물 대신 잦은 미소와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희망인 것 같다. 결혼 생활이 단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훌륭하고 품위 있게 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희망 말이다.

아쉽게도 모든 부부가 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외설물을 보는 당사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교회 자매들의 남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상관없이 그 자매들을 보살피도록 내가 받는 권고는 영감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매라면 누구도 감독이 자신을 살피지 못한다거나, 잘못 판단한다거나, 오해한다고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감독의 성역은 마음이 “찢려 깊은 상처를 입은”(야곱서 2:35) 자들은 물론, 모든 이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구주께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 ■



배우자를 위한 조언과 위로

“우리 지도자들은 외설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나 가족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불필요하게 고통받지 마십시오. ... 동정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중독 회복 모임이 있으며, 배우자들이 자택에서 전화를 이용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전화 참여 모임도 있습니다.”

린다 에스 리브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외설물로부터의 보호-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가정”,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16쪽.

망대 위의 파수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사야 62:6

파수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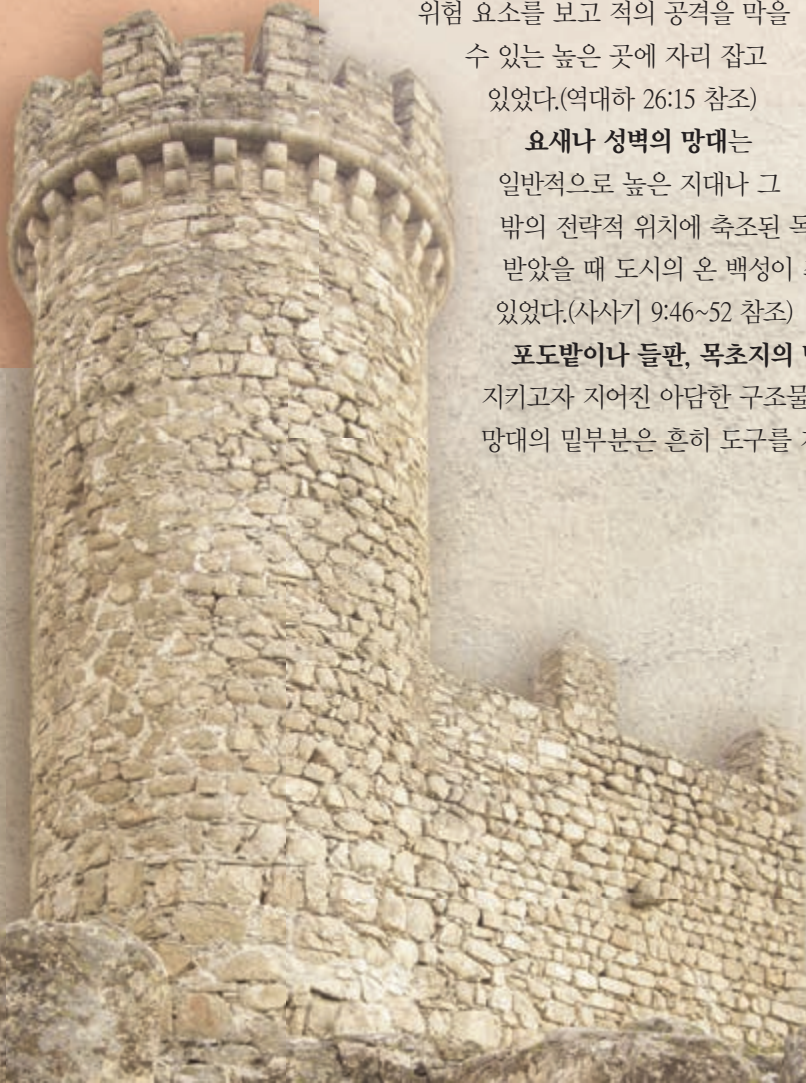
파수꾼이란 성벽이나 망대 위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지켜보고 알리는 보조였다. 그들은 도시뿐 아니라, 포도밭이나 들판, 목초지와 같은 곳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이들이었다.

망대의 종류

성벽의 망대는 대개 성문이나 모퉁이에 지었다.(역대하 26:9 참조)
성문과 모퉁이의 망대는 모두 접근하는 위험 요소를 보고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역대하 26:15 참조)

요새나 성벽의 망대는 일반적으로 높은 지대나 그 밖의 전략적 위치에 축조된 독립된 구조물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공격을 받았을 때 도시의 온 백성이 최후의 피난처로 삼을 만큼 넓은 곳도 있었다.(사사기 9:46~52 참조)

포도밭이나 들판, 목초지의 망대는 도둑과 동물들에게서 농작물과 가축을 지키고자 지어진 아담한 구조물이었다.(역대하 26:10; 이사야 5:2; 27:3 참조)
망대의 밑부분은 흔히 도구를 저장하는 공간이었다.





지켜볼 의무

“선지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인생의 질문에 답을 구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경고하고, 다가가서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25쪽.

망대 위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은 높은 시각을 갖고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권세를 지닌 종으로서 세상과 떨어져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또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선견자는 지난 일과 또한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인 바, 더욱이 은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요, 알려지지 아니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며, 또한 달리 알려질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다].”(모사이야서 8:17)

파수꾼은 마음을 놓지 않는다. 선지자에게는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 대중의 의견이나 사회의 풍조에 상관없이 선지자들은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일어나기에 아직 먼 일도 경고한다. “선지자는 죄를 비난하고 그 결과를 예고한다. 그는 의의 전파자이다. 때때로 선지자들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영감을 받아 미래를 예고할 수도 있다.”(경전 안내서, “선지자”, lds.org/scriptures/gs)

파수꾼은 안전과 보호책을 마련한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불순종의 결과로 빚어질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재난을 피하여 안전을 누릴 수 있다. ■



성경에 나오는 사실



구약전서에서 주님은 간혹 요새나 성벽의 망루를 피난처에(시편 18:2; 61:3; 잠언 18:10; 사무엘하 22:3 참조), 그리고 선지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하셨다.(이사야 62:6; 예레미야 6:17;

에스겔 3:17; 33:7; 호세아 9:8; 미가 7:4 참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17; 또한 에스겔 33:1~7 참조)

두 번째 기회

그 애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학교 식당으로 들어서는 내게 그 애는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다.

“바이올린!” 그 애가 다가오며 외쳤다. “맞아”

장애가 있는 이와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던 나는 달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 자리까지 따라온 그 애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리키며 옆에 앉았다.

그러더니 또다시, “바이올린” 하고 외쳤다.

케이스를 열어 주니, 그 아이의 눈이 번뜩였다. 그런데 너무 거칠게 바이올린 줄을 튕기는 것이 아닌가. 행여나 줄이 끊어질세라 가슴이 철렁해서, 나는 조심스레 케이스를 닫아 버렸다. 그 애는 자리를 뜨면서 포옹을 했다.

이후에도 나는 그 애를 자주 봤다. 볼 때마다 그 애는 내 머리 위에

“바이올린!” 윌리엄이 다가오며 외쳤다.

입맞춤을 하며 두 팔로 어깨를 감싸 주었다.

나는 남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 애가 오는 것을 보면 늘 피하려 했다. 그 애는 나를 보면 숨도 못 쉴 정도로 포옹하고, 침이 다 묻을 정도로 볼에 뽀뽀를 했다. 그러면 나는 잠시 억지웃음을 지으며 꼭 참고 있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종종 자리를 떴다.

“답소사.” 고등학교 마지막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그 애를 보자 나는 이런 탄식이 나왔다. 연주회가 끝나고 강당 밖에서 친구들과 서 있는데, 그 애가 어기적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해맑은 웃음과 함께 두 팔을 벌리며 내게 다가오자 친구들은 뒤로 물러났다.

“윌리엄!”

돌아보니 한 부인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미안해.” 그 애의 팔에 팔짱을 끼며 부인이 내게 말했다. “윌리엄이 바이올린을 무척 좋아하거든. 오늘 밤이 연주회에 데려가 달라고 조르더구나. 가자, 얘야.”

그제서야 나는 그 애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윌리엄을 만난 지는 2년도 넘었지만, 진정으로 그를 알고자 애쓰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며 그토록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윌리엄과 그의 엄마가 떠나는 걸 지켜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몇 년 후, 나는 결혼을 하여 귀여운 사내아이를 낳았다. 스펜서라고

이름 지은 그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 있었다. 아들을 바라보면 이따금 윌리엄이 생각났다. 그리고는 스펜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가 뽀뽀를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꼭 안아서 사람들이 피하지는 않을까? 스펜서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 때문에 또래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스펜서가 4개월이 되었을 때, 나는 진로 약속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갔다. 차에서 스펜서를 내리는데,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이 보였다. 믿기지 않게도, 윌리엄과 그의 엄마였다.

“윌리엄!” 그들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나는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가슴이 쿵다쿵다 뛰었다.

“안녕!” 주차장을 느릿느릿 건너오는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더니 열렬한 악수를 했다.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묻자,

“바이올린!” 그는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바이올린. 윌리엄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맞아.” 눈물과 웃음이 뒤엉켜 목이 메었다. “나 바이올린 연주했었지.”

윌리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정한 자비하심에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내가 윌리엄을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다. 아들의 건강 문제와 앞날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힘겨워하던 젊은 엄마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알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한, 이런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케일리 볼드윈, 미국 애리조나





아이들의 어머니가
값을 치르려고
계산대에 와르르 동전을
쏟아 내는 소리가 들렸다.

가서 그녀를 도우라

주 유소에서 줄을 서 있을 때였다. 바로 앞에서 한 어머니가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기름 3달러어치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두 개를 달라고 했다.

나는 한눈에 그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임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맨발에 허름한 차림새였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값을 치르려고 계산대에 와르르 동전을 쏟아 내는 소리가 들렸다.

주유비를 내고 걸어 나가며 그녀의 차를 힐끗 바라보았다. 연비가 매우 낮아 보이는 오래된 연식이었다.

잠깐 이 두 아이의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일었지만 나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들어선 지 일 분도

채 되지 않아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가서 그녀를 도우라.” 음성은 두 번 계속되었다.

나는 그녀가 이미 떠났으리라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세 번째로 명확한 음성이 들려왔다. “가서 그녀를 도우라!”

휴게소를 향해 오토바이를 돌리며 그 어머니가 여태 거기 있다면 할 말을 찾아보려 했다.

다시 주유소에 들어서니 그녀의 차는 문이 열린 채였다. 어머니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두 아이는 뒷좌석에 앉아서 신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짧은 기도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 보았다. 아까와

같은 음성이 이렇게 말했다. “이름을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라.” 나는 그 차로 다가가 내 소개를 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지금 막 예수님께 기도하며 도와줄 사람을 보내 주시라고 했던 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나는 그 차에 기름을 가득 넣을 만큼 돈을 지불하고, 당시 사람을 구하던 우리 장로 정원희 형제의 전화번호를 건넸다. 결국 이 젊은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녀를 도우라는 느낌을 따랐던 것이 감사하다. ■

토마스 로빈스, 미국 캘리포니아

쏘면 안 돼!

밥과 나는 경찰차 안에서 길 저편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무전 정보로 고지된 차량을 포착하고 두 시간 전부터 잠복 중이었다.

경보는 다음과 같았다. “총기 강도 사건 발생. 무장한 남자 둘. 조금 전 주황색 차량에 탑승한 모습 확인.

목격자에 따르면 둘은 매우 난폭하며 총기 사용 가능성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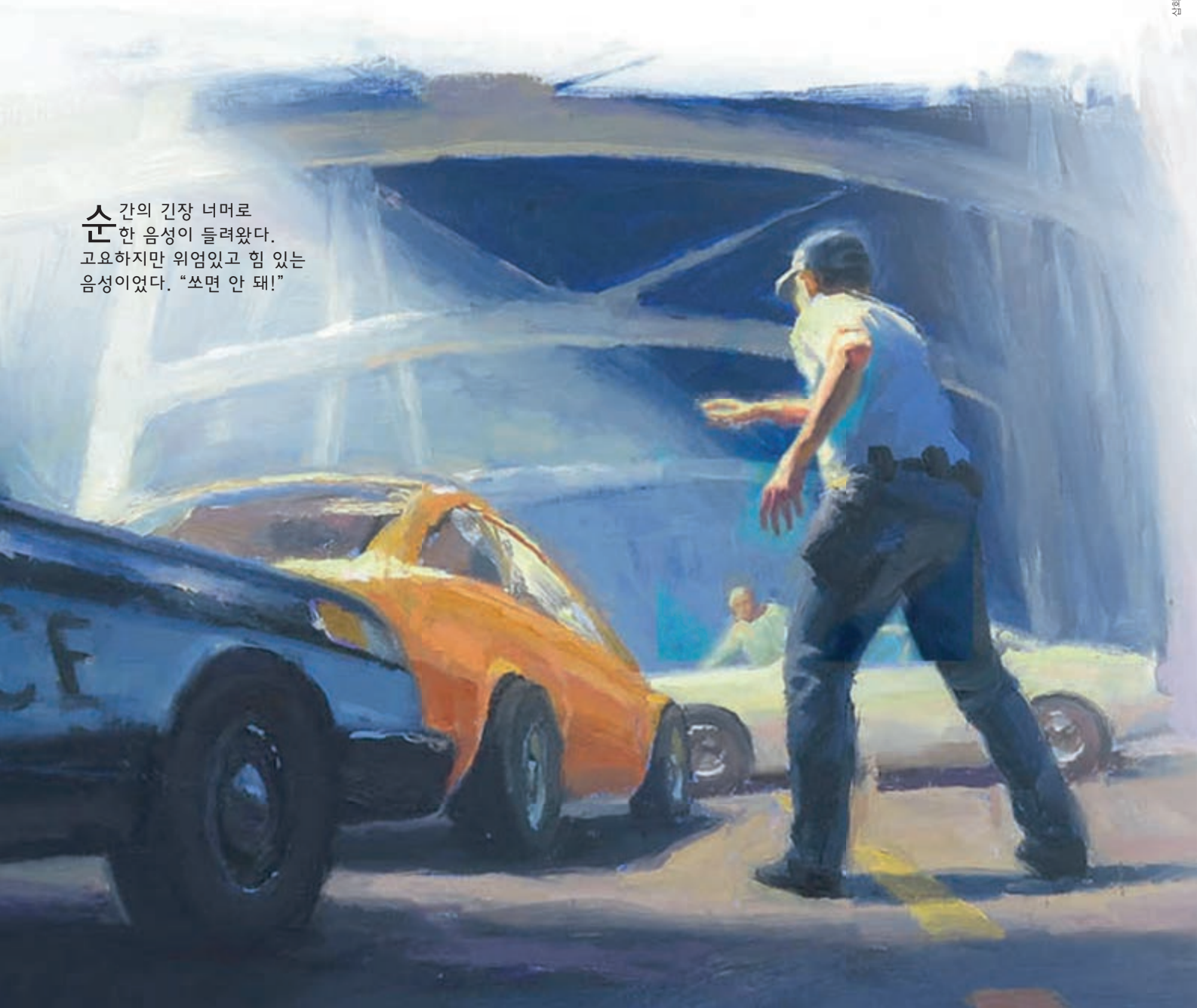
최근 이 지역에는 연쇄 무장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갖은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강도들은 매번 수사망을 피해 달아난 티였다. 이런 생각도 잠시, 어두운 거리의 인가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이 황급히 주황색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무전을 보냈다. “지원 바람. 용의자들 우리 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

사복 차림의 지원 형사 두 명이

스간의 긴장 너머로 한 음성이 들려왔다. 고요하지만 위엄있고 힘 있는 음성이었다. “쏘면 안 돼!”



일반 차량으로 밥과 내가 쫓는 차량을 앞서 갔다. 우리까지 세 대의 차량이 다리에 들어서자, 다리 위에서 지원 차량이 급정거하며 주황색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우리는 차량의 뒤편을 막아서서 용의자들을 포위했다. 순간 차는 멈춰 섰으나 두 용의자는 몸을 숙여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두 손 머리에 올리고 밖으로 나와!” 나는 차에서 내려 소리쳤다. 답이 없었다.

총을 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다시 외쳤다. “두 손 머리에 올리고 밖으로 나와! 당장!”

불현듯 운전석의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나를 향했다. 손에는 니켈로 도금된 물체가 번뜩였다.

훈련받은 대로라면, 그리고 상식대로라면 나는 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겨야 했다. 그러나 순간의 긴장 너머로 한 음성이 들려왔다. 고요하지만 위엄있고 힘 있는 음성이었다. “쏘면 안 돼!”

금방이라도 총에 맞을 것을 알고도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먼저 쏘도록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러는 대신, 운전석의 용의자는 손을 들고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다시 손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꼼짝 마! 나는 차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움직이지 마!”

거짓말 같은 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나는 차 안에 있던 그 난폭한 범죄자들이 사실은 겁에 질린 두 어린 소녀였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안전띠의 잠금장치일 뿐이었다.

곧이어 알고 보니, 소녀들은 그 차를 남자 친구들에게 빌려주었다고 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자네가 죽는 줄 알았네, 칼!” 나중에 밥이 말했다. “거의 쏠 뻔했지. 나도 내가 왜 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어.”

일반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사복 경찰들도 같은 말을 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들은 것은 나뿐이었다. 하늘의 권능만이 그 두 소녀의 목숨을 구하고 네 형사의 비극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었음을 나는 안다. 이 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도울 수 있으시고 또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
익명

몰몬경 읽기를 가르쳐라

스 위스 제네바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나는 지부의 회장으로 부름을 받아 성별되었고, 나의 아내는 그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지부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봉사했다. 그 지부는 1960년대에 조직되었음에도 오랫동안 침례가 없었고, 15년 동안 그 지부에서 출발한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그 지부가 직면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분명했다. 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기도하자 주님의 영이 내게 말했다. “회원들에게 몰몬경 읽기를 가르쳐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즉시 모든 회원이 몰몬경 읽기를 시작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놀라운 결과가 뒤따랐다. 평화와 영이 다시 그 지부에 찾아왔다.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가입했다. 한 젊은 청년은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선교 사업을 나갔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여러 부부가 강화되었고, 가족이 더욱 단합되었다. 그 지부는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우리 부부와 그 지부의 회원들은 몰몬경의 기적적인 힘을 직접 목격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간증의 종석이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몰몬경을 사랑한다. 그것은 영원불변한 진리의 근원이다.

이 경험은 몰몬경이야말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책은 평화, 기쁨, 행복,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강한 소망을 가져다준다. ■

에밀리언 리우, 캐나다, 퀘벡

사탄의 위조품을 알아보는 눈

데니스 시 건트

식 품점에서 일 달러짜리 지폐 두어 장을 지갑에 넣는데 그중 한 장에 눈이 갔다. 초록색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약간 더 밝은 것 같아서 나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그림도 그다지 선명해 보이지 않았다. 종이의 질감도 달랐다. 위조지폐였던 것이다! 점원은 위조지폐를 진짜 일 달러짜리 지폐로 바꾸어 주고 위조지폐는 가게 매니저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위조지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지폐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통되었으며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을지 궁금했다. 사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속았을 터였다. 그러나 그것을 진품과 비교하며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에 집중함으로써 나는 그 지폐가 위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경은 영적인 위조꾼들의 예로 가득한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좇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방법을 따랐다.

숙련된 눈이 진짜 화폐와 위조 화폐의 차이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들의 술수와 계락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이 범하는 실수와 오류에 눈 뜨게 된다. 차이점을 분별하기 위해 눈을 숙련시킬수록, 우리는 오늘날의 위조꾼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더욱 단단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의 위조품에 관한 정보 수집

사탄은 자신이 만든 영적 위조품으로 우리를 유인하려 하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될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사탄은 능수능란한 모방자이며, 참된 복음 진리가 세상에 전례없이 풍부하게 주어졌듯이 그는 거짓 교리라는 위조 화폐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사탄의 화폐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실망과 비참, 그리고 영적인 죽음뿐입니다.”¹

**우리가
영적인 위조품과
마주칠 때, 물론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도움을 준다.**

사탄의 위조품에 속지 않을 최선의 방어책은 복음 진리에 최대한 정통해지는 것이다. 진리를 깊이 이해할수록 사탄이 위조품을 내밀 때 차이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내가 일 달러짜리 지폐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찾아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차이점이야말로 어김없이 거짓이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물문경은 그리스도의 적들을 노출시킵니다. ... 끝없이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대의 그릇된 교육, 정치, 종교, 철학 개념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물문경을 마련하셨습니다.”²

지금 우리는 사탄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느 군대가 그렇듯, 우리도 적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적이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아는

것은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을 “정보 수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적을 아는 것이 적보다 영리해지는 길이다. 물문경은 사탄이 위조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침하는 말은 위조품이다

물문경에 나오는 위조꾼의 절반 이상은 자신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아침하는 말과 사람을 사로잡는

면모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시렘은 “백성들의 언어를 완전히 알았고, 그리하여 악마의 능력을 좇아 많은 아침과 많은 언변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었다.”(야곱서 7:4) 노아 왕의 간악한 제사들은 “헛되고 아침하는 말”(모사이야서 11:7)을 하였으며, 그런 식으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간악함에 빠져들게 했다. 코리호어 또한 당대에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니, “많은 자의 마음을 이끌어 내[었다].”(엘마서

30:18) 아멜리카이아와 개다이엔톤은 둘 다 간악한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 아침하는 말을 사용했다.(엘마서 46:10; 힐라맨서 2:4 참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아침은 알팍하고 가식적이며 허황되며 과장되어 있다. 니파이는 “이 같은 방식으로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교리를 가르치고 그 마음이 부풀어올라, 그들의 피를 주에게서 깊이 숨기려 하[며] 그들의 행위[가] 어둠 속에 있[을]”(니파이후서 28:9) 자들을 경고했다.

아침은 보통 기만에 사용되며 대개 이면에 다른 동기와 계획이 숨어 있다. 아침은 실제보다 겉모양이 그럴싸하며 육으로 난 인간의 허영과 교만에 호소한다. 그러나 주님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간결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말한다.

아침, 사탄이 사용하는 언어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탄의] 음성은 매우 합리적이며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정당화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그 목소리는 달콤한 말투로 유혹하고 마음을 끕니다. 딱딱하지도, 귀에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만약 사탄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거나 심술궂다면 아무도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³



“[사탄의] 음성은 매력적이고 마음을 끕니다. ... 만약 그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거나 심술궂다면 아무도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오로지 우리의 허영심이나 자만심에만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사상이나 철학, 혹은 논점을 내민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경고로 여겨야 한다. 그런 사상들은 위조품으로 보고 주님의 선지자가 가르친 진리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찾아 보면 그것들이 거짓 사상임이 분명해진다.

니허-대중의 마음을 산 위조꾼

니허는 거리낌 없이 아침이라는 사탄의 방법을 사용했다. 영적 위조꾼의 사례로서 그를 자세히 살펴보자. 구속주의 사상이 깃든 것처럼 보이는 교리를 전하고 다녔던 니허는 니파이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진 설교자였다. 니허는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엘마서 1:4)이라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

니허의 메시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태평하고 느긋한 하나님,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다. 그러므로 다 괜찮으니 가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니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철학이다.(엘마서 1:5 참조) 천국으로 가는 공짜 표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니허의 메시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의 주장에서 핵심을 다시

마다가스카르에서 헤아리는 축복

민디 앤 셀루
교회 잡지

첫 임신에서 가슴 아픈 유산을 겪은 아내가 일 년 뒤 두 번째 임신을 하자, 솔로푸 라발로주나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느꼈다. 그와 그의 아내 하리 마틴은 자신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딸의 출생이라고 여긴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아이라 딸에게 마다가스카르어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라고 솔로푸는 말한다.

마다가스카르의 청년 성인인 솔로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충실한 자를 축복해 주심을 분명히 안다. 솔로푸는 말한다. “삶은 힘겨워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복음대로 생활하고 경전을 읽으면 삶은 더 수월해집니다. 제대로 복음을 실천할 때 축복도 제대로 볼 수 있지요.”

극도의 가난, 불안정한 정부, 취약한 기반 시설, 자연재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겪는 나라에서 살다 보면 솔로푸가 삶이 힘겹다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대로 생활하여 얻는 축복이 어떤 역경보다도 크다. “복음대로 사는 한 제가 받을 축복은 셀 수조차 없을 거예요.”라고 그는 말한다.

교회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상대적으로 시작 단계라(첫 번째 지부가 1990년에 조직되었다), 솔로푸는 교회에 대한 소문과 오해가 교회 회원이 되는 데 가장 큰 장애라고 말한다. 솔로푸는 리하이의 생명나무 시현에서처럼, “사람들은 친구들 앞에 부끄럽고, 가족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솔로푸는 자신이 남과 다른 점을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한 번도 창피해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복음대로 살고, 항상 동료들과 복음을 나누기를 바라요. 개중에 몇몇은 그다지 관심이 없지만 말이죠.” 그가 워낙 짙막한 간증을 자주

솔로푸는 자국의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서 오는 축복에 의지하고 있다.

전하다 보니 동료들은 그에게 “목사”라는 별명까지 붙여 주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솔로푸와 하리 마틴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맺은 성약의 축복에 의지한다.(솔로푸가 우간다에서, 하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일 년 후, 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결혼했다) 솔로푸는 이렇게 설명한다. “세계는 복음이 있고, 제 삶을 그저 주님의 손길에 맡길 뿐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신앙이 있으므로 굳센 간증에 의지할 수 있다. ■

사진: 위: 솔로푸 라발로주나 제공. 아래: © ISTOCK/THINKSTOCK



슬로푸에 대하여

좋아하는 음식:

우리 주식은 쌀입니다. 쌀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라브토토[ravtoto]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한 도구로 카사바 잎을 곱게 빻아서 쌀밥과 돼지고기에 곁들입니다.

여가를 보내는 법:

전자 피아노를 치고 노래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전자 피아노도 치는 것을 아신 지부 회장님은 제가 회원이 되자 “아, 합창을 이끌 사람이 생겼네요.”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시간을 냈습니다. 그전에는 지부에 합창단이 없었지만, 제가 회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회원들도 합창을 즐깁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

언어: 프랑스어, 마다가스카르어
수도: 안타나나리보

숫자

22,005,222명(2012년 추산)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되는 동물의 80퍼센트는 지구상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
세계에서 생산되는 바닐라의 60퍼센트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출된다.

마다가스카르의 교회

회원 수 9,190명
와드 및 지부 37개
스테이크 2개
선교부 1개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영적인 안정성: 가라앉지 않을 배를 만드십시오

필멸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길을 찾아 안전하게 하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충분히 안정돼 있어야 합니다.

17 세기 초, 스웨덴 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보사 호라 이름할 군함을 제작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배는 재료를 대느라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건조에 쓰일 참나무는 매우 고가의 자재였습니다. 구스타프 아돌프는 반드시 자신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는 모습으로 보사 호를 탄생시키겠다고 건조 과정을 꼼꼼히 감독했습니다.

건조가 시작된 후, 구스타프 아돌프는 보사 호를 더 길게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값비싼 참나무로 배의 가로 지지대를 완성한 터라, 왕은 조선공들에게 배의 너비는 그대로 두고 길이만 늘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공들은 그렇게 하면 보사 호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이야기인지라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구스타프 아돌프는 또, 이 배에는 단순히 관례대로 단층 갑판에 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갑판을 3단으로 만들고 함포를 놓되, 제일 무거운 함포를 상층 갑판에 장착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조선공들은 그것이 현명하지 못한 판단임을 알고서도 다시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1628년 8월 10일, 보사 호는 처녀 항해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항구를 떠난 보사 호는 돛에 돌풍이 불어닥치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배는 오른쪽으로 기울었고, 바닷물이 포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니 마침내 돛과 깃발, 그리고 모든 것을 달고서 배는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¹ 보사 호의 처녀 항해 거리는 약 1,280m였습니다.

화려한 권력의 상징물을 취하려던 구스타프 아돌프의 욕망은 당대 최강의 군함이 될 뻔했던 웅장한 범선의 설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공들이 왕의 비위를 거스를까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고 주저한 탓에 왕은 그들의 지식과 통찰력을 놓쳤습니다. 스웨덴을 방어하고 해외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겠다는 것이 이 일의

목표였음에도, 이 일에 관련된 모두가 그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려 했던 함선은 그저 가라앉고 말 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측풍(옆바람): 항공기나 선박의 진로에 수직으로 부는 바람으로 운항에 장애를 일으킴-휩긴이)과 역류에 맞서고, 필요한 쪽으로 방향을 틀며, 하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사 호가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움직였듯이, 우리는 모두 영적인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일컫는 이 영적인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스타프 아돌프는 배를 건조할 때 물리적인 법칙을 고려하는 것을 구속으로 여겼겠지만, 이런 법칙에 순응했다면 보사 호가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라앉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배는 의도했던 일을 성취할 자유와 유연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는 잠재성을 이뤄 낼 자유와 유연성, 그리고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할 때 영적 안정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노니,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키라.”(제3니파이 15:10)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간단한 일입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영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은 달리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이룰 더 큰 자유를 얻는 법도 달리 없습니다.

✦ **권고에 귀 기울이고 평생 배우는 자가 되어**

둘째로, 신뢰할 만한 곳에서 주어지는 권고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며, 평생 배우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지식을 얻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석함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에게서 이 점을 발견합니다. 똑똑한 체하는 사람을 가르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평생 배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어린아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에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² 아이어링 회장은 그를 총관리 역원으로 부르시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자신이 이미 들어 본 이야기를 전하거나 익히 아는 성구를 언급하면, “주님은 왜 그것을 나에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나 성구에서 내가 더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라고 자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안정성을 높이고 싶다면, 우리는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기꺼이 배우고 충분히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 중에도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한 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믿음직한 친구가 주는 권고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가 되고자 할 수도 있고 되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고 높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안정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물속에 가라앉은 보사 호처럼 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초로 삼아

넷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정도에 비례하여 영적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파도 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처럼 떠밀릴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없어 항해할 힘이 없습니다. 닻이 없어 폭풍이라도 치면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키가 없어 방향도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즉흥과 역류를 마주하여 이겨 내기 위해, 그리고 그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평생 배워 나갈 겸손한 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보사 호와 달리, 우리는 숙명을 실현하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014년 9월 16일 열린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스웨덴 왕실 협회가 구스타프 2세 아돌프 왕에게 보낸 편지; Richard O. Mason, "The Vasa Capsizes", virtualschool.edu/mon/CaseStudies/Vasa/vasa.html에 인용된 번역. 보사 호에 관하여는 여러 건의 기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vasamuseet.se/en for history and other links 참조.
2. Henry B. Eyring, Robert I. Eaton and Henry J. Eyring, *I Will Lead You Along: The Life of Henry B. Eyring*(2013), 409.

✦ 다른 이를 위한 봉사

셋째, 생각과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봉사하면 영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집중할 때, 영원은 시야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알고자 기도할 때 영감을 받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젠가 남을 도울 만큼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간이 더 많아지고, 돈이 더 많아지고, 무엇인가 더 많아져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가 더 쉬워지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겠습니까, 돕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기로 한다면 필멸의 중요한 시험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돕기로 한다면 우리의 영적 안정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10분 만에 찬송가 연주법 배우기!

자료 수집 및 적용: 대니얼 카터
교회 음악 및 문화 예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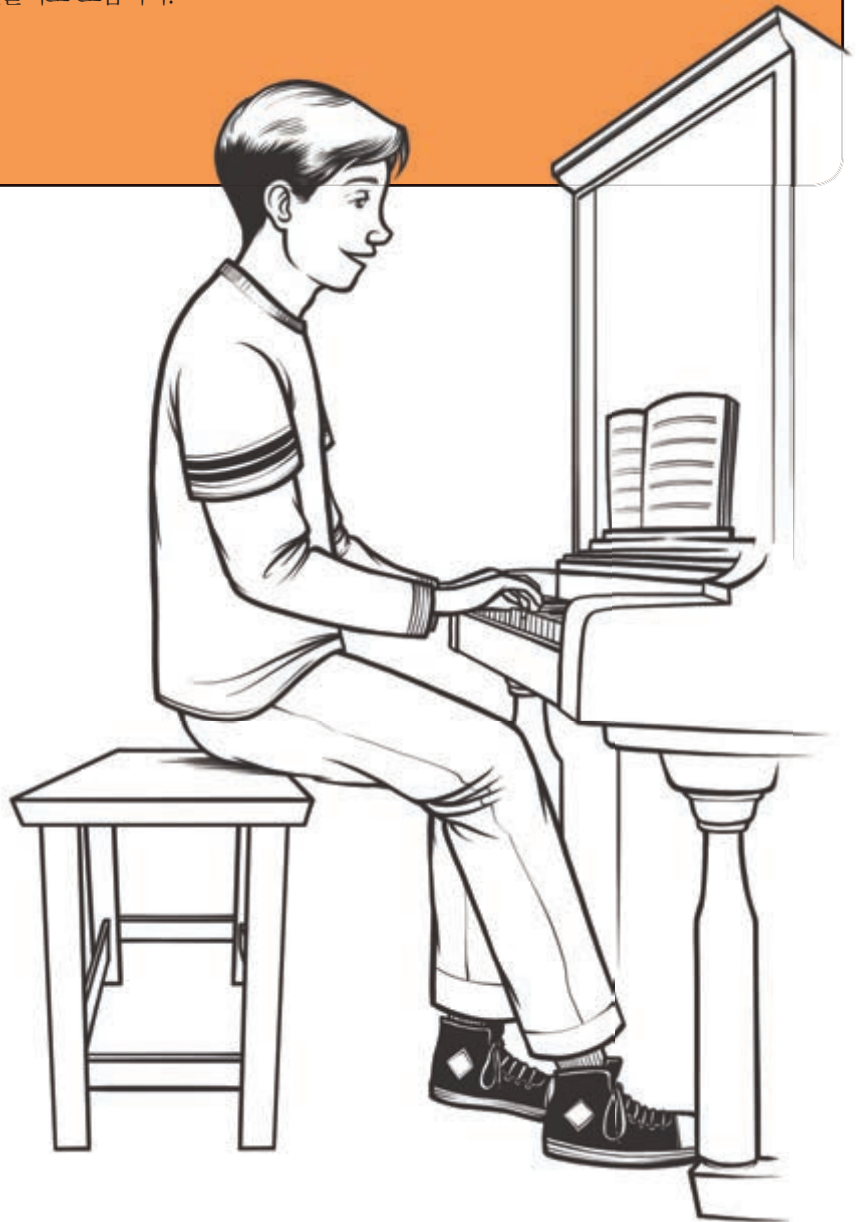
피아노를 쳐 본 적은 없지만 늘 배우고 싶었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건반 악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집에 악기가 없더라도 이 기사를 들고 피아노나 전자 피아노가 있는 장소로 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 강의는 매우 간단하고 쉬워서 끝까지 읽고 나면 찬송가를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10분이면 이 강의에 나오는 찬송가의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해 봅시다!

피아노를 치기 위한 준비

1.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건반에 얹고 팔꿈치가 살짝 굽혀질 만큼 의자를 충분히 뒤로 밀니다.
2. 건반 한가운데를 보고 의자 중앙에 앉습니다.
3. 등을 곧게 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의자 앞쪽에 앉습니다.
4. 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5. 편안히 앉아서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6. 악보와 건반이 보일 만큼 충분히 밝은지 확인합니다.





- 7.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옆으로 내리고 긴장을 풁니다. 마치 공을 쥌 듯 손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앉아서 손가락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채로 건반에 올려놓습니다.
- 8. 손을 건반 위에 두고 흰 건반 넓은 부분의 가운데쯤에 손가락을 내려놓습니다.

- 9. 손가락 끝 바로 아랫부분으로 건반을 누릅니다. 모든 손가락은 곡선을 유지한 채 손등으로 이어지는 관절부터 들어 올립니다. 건반을 누를 때는 손가락 마디가 구부러져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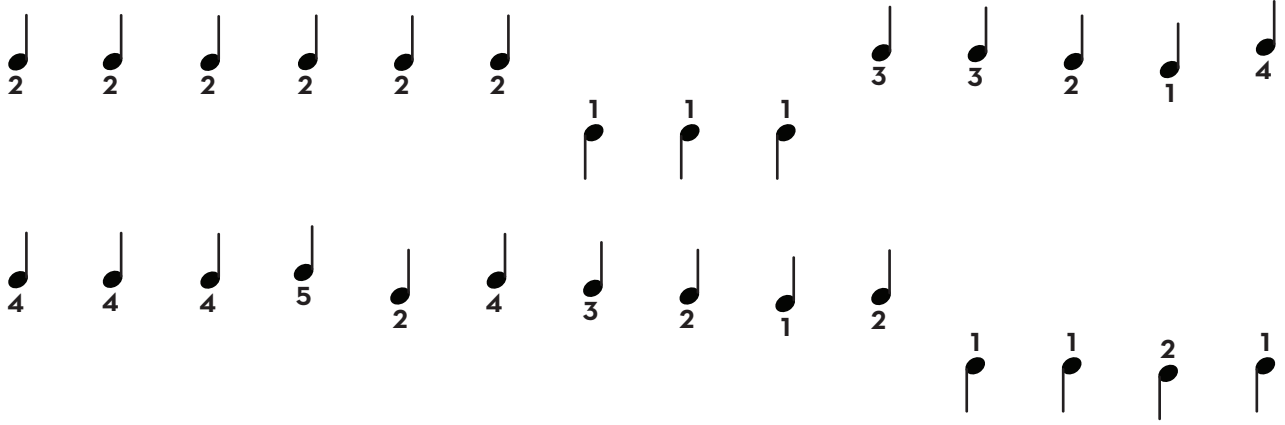


손가락 번호로 연주하기

각 건반을 정확한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도록 손가락에는 위와 같이 번호가 있습니다. 손가락 번호는 다음 쪽의 주 옆에 적혀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건반 다섯 개 위에 손을 올리되, 한 건반에는 손가락 하나만 둡니다. 적힌 번호에 맞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연주하는 식으로 손가락 번호를 연습합니다. 기둥이

위를 향한 음표는 오른손으로 연주합니다. 기둥이 아래를 향한 음표는 왼손으로 연주합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 성” 연주하기

아래와 같이 건반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검은 건반 두 개 또는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곳을 이용하면 올바른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손가락 번호를 따라가며 이 찬송가를 연주해 보세요. 기둥이 위를 향한 음표는 오른손으로, 아래를 향한 음표는 왼손으로 연주합니다. 이 찬송가를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합니다. 아홉 가지 확인 사항에 언급된 올바른

운지법을 활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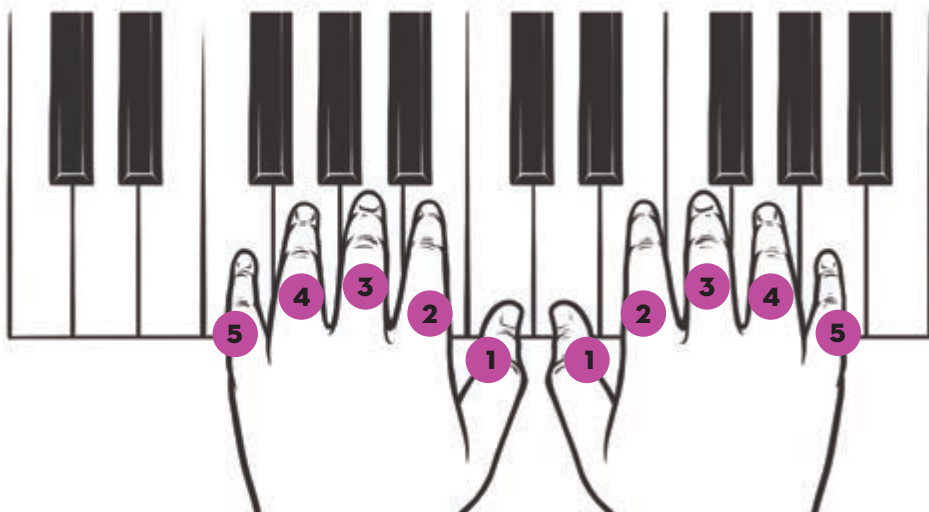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아노 연주법을 접하고 간단한 찬송가 멜로디를 배웠습니다. 다른 찬송가를 연습하려면 박자, 리듬, 음표에 관한 기본 원리 몇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배운 내용은 교회에서 여섯 가지 언어로 배부되는 건반 악기 과정의 첫 번째 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¹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마련된 강의 내용은 혼자 또는 여럿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의 밤 활동으로

피아노 배우기를 하여 온 가족을 함께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 6주면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개인 음악 교습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 및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²

음악적인 자질을 익히면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계발하고, 지식을 키우며,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재능을 사용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주

1. 건반 악기 과정은 지역 배부 센터 및 북센터에서 주문할 수 있다.
2. Laura Lewis Brown, "The Benefits of Music Education", pbs.org; Jessica Velasco, "How the Arts Can Help Students Excel", the Science of Learning Blog, Dec. 11, 2012, scilearn.com/blog/how-arts-help-students-excel; "Music Helps Children Learn Maths", The Telegraph, Mar. 22, 2012, telegraph.co.uk 참조.

그만두기 위해 열심히 하기

피아노를 배운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도 내 실력은 좀처럼 늘지를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피아노 교습을 그만두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다. 바로 찬송가 50곡을 완벽히 치는 것이었다.

그레천 블랙번

나는 평평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피아노 레슨을 또 한번 망쳤기 때문이었다. 피아노를 배운 지 사 년이나 되었지만, 나는 “반짝반짝 작은 별”같은 쉬운 곡만 겨우 칠 수 있었다. 선생님은 내 끈직한 연주에 대해 무언가 긍정적인 말을 해 주려고 노력하셨지만, 기분만 더 상할 뿐이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나아질 희망도 없는 피아노 레슨에 우리 부모님은 돈을 들이고 계셨다.

피아노를 그만두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간청했다. “제발요, 뭐든지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께서서는 잠시 의논하시더니, “네가 찬송가 50곡을 완벽히 치게 되면, 그만두게 해 줄게.”라고 하셨다.

나는 즉시 연습하기 시작했다. 나는 피아노가 너무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에, 피아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첫 번째 찬송가는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찬송가 6장)이었는데, 완벽히 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계속 연습을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한 곡을 완벽히 치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었다. 나는 한 주 내내 더 행복해졌다. 나는 온종일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성찬식 모임에서 더 크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결국에는 내가 칠 줄 아는 찬송가가 몇 곡인지를 세어 보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다. 피아노를 더 잘 치게 되면서, 나는 내가 새로운 찬송가를 30분 이내에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서야 내가 배운 찬송가를 다 더해 보았더니 50곡이 훨씬 넘었다. 그렇지만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내 연주 실력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내 삶에서 찬송가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

찬송가는 경전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한다. 찬송가를 연주할 때면 경전 구절에 꼭 빠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찬송가 연주를 배우는 것은 내가 간증을 키우고 진리를 배우는 시발점이 되었다. 나는 온종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찬송가의 가사를 되새겨 보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나의 간증을 강하게 해 주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다. ■

글쓴이는 미국 뉴욕에 산다.



충격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삶의 가장 **힘겨운 경험**을 통해, 내 인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느꼈다.

파올라 사유피

2008년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엄마는 학교에 가라고 나를 깨우셨다. 나는 그날따라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날이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되리라는 것도, 엄마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날 수업을 전부 마치지 못했다. 우리 가족의 지인 한 분이 나를 데리러 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자살하셨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나는 고작 열두 살이었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가장 좋은 친구였다.

몇 달이 지나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예전 같지 않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 같아서 학교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뭘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을 봐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대여섯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내 방 창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이 무언지를 알고자 애쓰며 울고 있었다. 불현듯, 머릿속에 한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딸이란다. 네가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오마.”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다. 더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특히 내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이가 그분이라는 생각이 든 이후로는 더더욱 그랬기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안도감을 느꼈다.

삼 년이 지난 후 나는 삼촌을 뵈러 이탈리아 로마에 갔다. 삼촌은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관해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더니 어느 일요일에 나를 데리고 가셨다. 처음으로 교회 문을 향해 걸어가던 그 순간과, 안에 들어서며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것이다. 마치 집에 온 것만 같았다.

나는 매주 일요일 모임과 주 중의 모든 활동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았다. 친구들과 있으니 더욱 행복했다. 친구들은 생각하고 믿는 것도 나와 다를 게 없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여름 방학이 끝나 알바니아로 돌아가야 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빠께 그간 내가 느낀 감정과 얼마나 큰 행복감을 맛보았는지 말씀드렸다. 하지만 아빠는 맘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는 내가 계속 교회에 나가거나 교회에 관해 더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따라서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삼 년을 참아야 했다. 그래야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려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축복을 누렸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내게 전해 주었다. 그들 중에 스테파니가 있었다. 그 친구는 우리 삼촌이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고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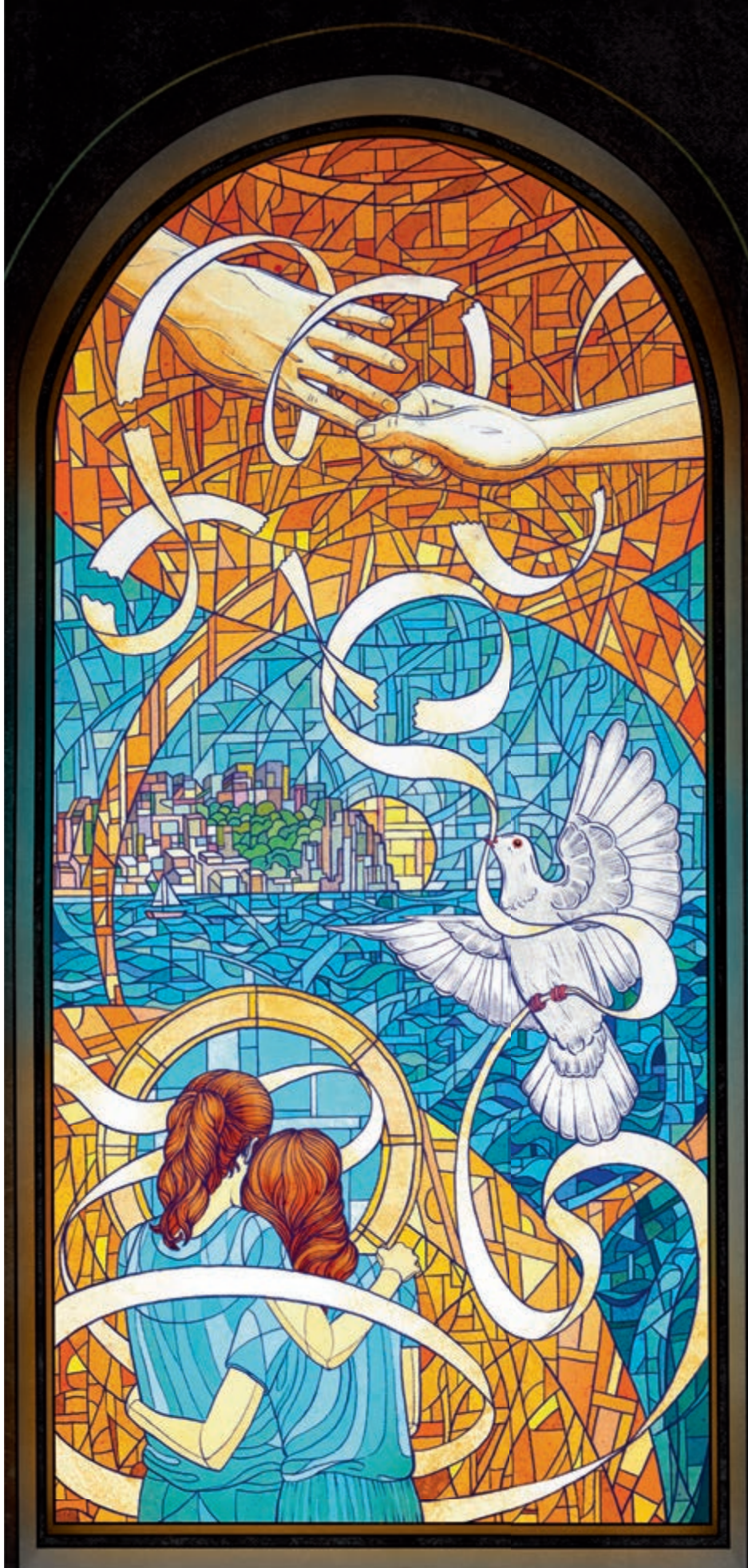
미국으로 돌아갔다. 삼촌은 우리가 서로 편지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에 스테파니를 친구로 추가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나는 신앙을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배우도록 도와준 그 친구에게 언제나 고마워 할 것이다. 스테파니는 거의 일요일마다 편지를 써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모두 알려 주고, 내가 질문을 하면 답도 주었다. 그 아이는 훌륭한 친구였다.

삼 년이란 인내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나는 열여덟 번째 생일 이틀 후에 침례를 받았다. 그날 내가 맛본 행복을 나는 이제 곧 엄마와도 나눌 것이다. 엄마를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도 내가 선택한 삶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삶의 여정 내내 갖가지 방법으로 나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나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다. 마주친 모든 시련을 이겨 나갈 힘을 주신 이는 바로 그분이셨다. 늘 곁에 계셔서 내가 더욱 행복해지도록 도움을 주셨다. ■

글쓴이는 알바니아에 산다.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비록

수줍음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려 노력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새로 선교부 회장이 되어, 몇 명의 장로를 접견할 때였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자기를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줍음이 아주 많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장로는 자신의 수줍음이 선교 사업에 지장을 줄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수줍음이 많더라도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장로가 방에서 나가는 동안, 저는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선교사들이 다시 접견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줍음을 많이 타던 장로의 동반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동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제 동반자가 다른 사람들과 말을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로와의 접견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장로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줍음이 많긴 해요. 하지만 주님께 저를 도와 달라고 간구한 뒤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제 말을 좋아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을 느껴요. 저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인정해 줍니다.”

이 선교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보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그 장로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줍음이 많긴 해요. 하지만 주님께 저를 도와 달라고 간구했어요.”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을 나누는 일은 때로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줍음 많은 선교사가 증명해 보였듯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줄 것이고(니파이후서 32:2~3 참조) 사람들은 영을 느낄 때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더 알아보고 싶어 됩니다.

큰 기쁨

우리가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기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8:16 참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침묵이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깨고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줍음이 많더라도 말입니다. ■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두려움

수줍음 외에도,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 친구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요.”라는 말의 원천이 되는 세 가지 두려움이 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두려움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1.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만일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임 선교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회개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젊은 청년들이 그 책을 한 권씩 소지하고, 경전과 함께 매일 공부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2.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부족하다면, 선교사와 함께 연습하십시오! 선교사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복음을 나눌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3. 복음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요.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것은 친구들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다른 빛으로 인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웠지만 솔직하게 복음에 대해 나누었을 때, 제 친구는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것은 소중한 값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 공간

모든 일에 정직하라

알리비 에이치, 멕시코 할리스코

학 교의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노트와 계획표, 그리고 무작위로 나눠 주는, 무료 샘플 제품이 담긴 꾸러미를 받는다. 그러던 어느 해, 줄을 서서 그 꾸러미를 받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던 샘플 제품은 특히 내게 유용한 것이었다.

그날 하루가 끝나 갈 무렵, 나는 사람들이 그 똑같은 꾸러미를 두 개씩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줄만 다시 서면 꾸러미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 제품들은 공짜였고, 나는 그 물건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나가는 길에 잠시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 안에는 누군가 실수로 놓고 간

핸드폰이 있었다. 그 핸드폰은 최신 사양이었다. 그리고 난 불과 일주일 전에 내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드폰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건 도둑질이야.”라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공짜 물건을 두 번째로 받으러 나가는데, 그건 누군가 두고간 핸드폰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부정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물건들을 아직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큰 교훈을 가르쳐 준 이 작은

경험에 감사했다. 나는 핸드폰을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하나의 노트와 하나의 계획표, 그리고 하나의 건본 제품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정직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십일조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축복

사브리나 티, 브라질 상파울루

내 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내가 열 살정도 될 때까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아버지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어서 노점상을 하셨는데, 수입이 많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는 나와 내 남동생을 돌보시느라 집에 계셨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가족은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매달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쳤고, 넉넉하진 않았지만, 결코 부족함 없이 지냈다. 그 어려웠던 시간 동안 계속 주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축복은 주님의

무한한 친절하심에서 왔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결국 우리의 재정적인 시련의 나날은 끝이 났다. 주님께서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족에게 주셨다.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십일조와 헌금을 충실히 내는 사람들은 결코 부족함 없이 생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축복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

맛있게 보입니까?

다시 살펴보세요. 사탕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채워 주지 못할, 환상에 불과한 충족감과 참된 기쁨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조금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다이어트 애플 우호트도르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라이언나, 2013년 11월호, 56쪽 참조)



후기 성도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맞

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이 상황에 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 그런데 빛을 발할

용기를 낸다는 것이 반드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는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강화하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조롱을 받더라도 그저 옳은 일을 계속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침착한 용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놀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자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모로나이 7:48 참조) 모든 상황이 다르므로 각각의 상황에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방법을 알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때에 따라서 조롱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심지어 자신의 믿음을 계속 실천하는 가운데 불친절한 조롱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는 친절과 용서, 성실의 모범이 내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보여 주세요

여러분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은 단지 그만해 달라고 말할 용기 정도로는 놀리기를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용기를 행사할 때, 그들은 그러기를 멈출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 주셨음을 나타내는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바라건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회복된 복음을 보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줄 것입니다.

브라이트 유, 17세, 나이지리아 이모 주

기본적인 것들에서 힘을 얻으세요

기도와 금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숭한 조롱을 겪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조롱과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인내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윌테르 시., 15세, 페루 하엔



기도를 통해 인도를 받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유일한 회원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학교의 다른 친구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저를 놀리도록 다른 친구들을 부추기던 아이 중 하나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그 친구 자신이 존중받기 원하는 대로 저를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이야기를 들으신 선생님 한 분은 문제가 생긴 것을 보실 때면 항상 저를 옹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샤넬라 에스, 14세, 필리핀 팡가시안

간증을 키우세요

먼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진리에 관해 참된 간증을 얻으십시오. 그런 후에 조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분쟁을 지지하지 않으시므로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제3니파이 11:29 참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영을 동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이 더 큰 사랑과 용기를 지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말에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율리아 에프, 19세, 독일 헤세



원수를 사랑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겸손해진다면 “원수를 사랑하며 ...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마태복음 5:44)하는 데 필요한 힘과 신앙으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굳건해지는 방법에 관하여 경전에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신앙 속에 혼자라고 느낄 때는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리건 티, 15세, 미국 유타 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를 더 자주 언급하십시오. 교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을 때, “후기 성도라서 참 좋다”라는 말을 가방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제가 후기 성도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머지않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를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바나 피, 14세, 미국 텍사스 주



확신에서 나온 용기

“특이한 사람으로 군중 가운데 홀로 서서 자기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남들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편에는 위안을 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야 나와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1]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다면, 확신에서 나온 용기가 두려움을 밀어낼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이후나, 2015년 11월호, 88쪽.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6년 5월 1일 월요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3쪽의 주소 참조)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도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도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회의 회원들을 방문합니다.

제가 사도로서 처음으로 여행했을 때,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님께 아주 단순한 다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형제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맞서 노력하시는 동안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단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십이사도 중 한 명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

베드나 장로님과 베드나 장로님의 부인이 연사로 초대된, 실시간 전 세계 방송 모임에서 발췌함.



캐럴 에프 맥콩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마음의 평화



저는 여덟 살 되던 해에 선지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뉴욕의 팔마이라에 새 교회 건물을 헌납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주 많았습니다. 모두 선지자를 본다는 생각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저는 꽤 작았던지라 사람들 틈으로 그분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는 중에도 맥케이 회장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하얀 머리카락과 다정한 얼굴을 뵈는 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생기셨구나.”

경전에서 선지자에 관해 읽어 본 적은 있었지만, 선지자나 총관리 역원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선지자는 살아 있는 사람이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느꼈던 사랑과 평화를 저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열한 살이 되어, 또 한 번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스테이크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 났습니다! 예쁜 흰색 상의를 입었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합창단이 부른 노래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 구절에 마음으로 감동하였고 그 후로 늘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노래로 부를 때, 그 말이 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성신이 제게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저를 평화롭게 합니다. 어린 시절 배운 그 진리는 제 온 생애를 축복했습니다. ■

이든의 간증

래리 힐러

실화에 근거함.

“들어 보라, 성신의 속삭임을 들어 보라,
작은 음성을”(리아호나, 2006년 4월호,
친13쪽)

이든은 함께 나누는 시간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친구인 세라도 간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샘은 봉사를 했던 경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봉사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 했다. 세라는 가족에 관해 간증을 나누었다. 이든의 초등학교 교사도 간증을 나누었고 성전 사업에 관해 말씀했다. 모두가 이 교회가 참되다고 간증했다. 이든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슨 간증을 갖고 있을까?” 이든은 궁금했다.

몇 년 전 친구와 함께 침례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았다. 초등학교 교사인 콜터 자매가 성신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 주었다.

“성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참된 것을 알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여러분이 간증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든은 성신을 느끼기 위해 옳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다. 경전을 읽고 기도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던 뜨거운 느낌은 느껴 본 적이 없었다. 그게 간증이 없다는 뜻일까?

이든은 다음 날에도 온종일 그게 궁금했다. 방과 후에 샘과 함께

이든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도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샘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

“샘, 있잖아.” 이든이 마침내 물어보았다. “어제 간증을 나눌 때 떨리지 않았니?”

샘은 스케이트보드에서 폴짝 뛰어내려 잔디밭으로 걸어갔다. “아니, 별로.” 샘이 앉으면서 말했다. “지난번에 가정의 밤 시간에도 간증을 나눈 적이 있거든.”

이든은 샘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스케이트보드를 올려놓았다. “근데 너는 간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글쎄, 기도해 봤는데,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

에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애꿎은 스케이트보드 바퀴를 돌렸다. 에단도 어떻게든 그런 느낌을 느껴 보고 싶었다.

그날 밤, 집이 어둡고 조용해지자, 이든은 기도하려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것도요. 물몬경이 참되다는 것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던 중, 이든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다. “글쎄,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알게 된 건가?”

바로 그때, 조용하고 평온한 느낌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건 강하고 뜨거운 느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든은 그것이 성신이었다는 걸 알았다.

이든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이제는 그런 것들이 참됨을 알아.” 그리고 보니, 이런 평온한 느낌을 전에도 느껴 본 적이 있었다.

물몬경을 읽을 때마다, 좋은 느낌과 옳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이든은 이제야 그 느낌이 바로 성신이 간증해 주는 느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에 갔을 때도 좋은 느낌이 들었고, 교회에 있는 것이 옳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것도 성신의 느낌이었다. 이든의 간증은 이미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지금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성신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성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간증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든은 알고 있었다.

이든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한 기도였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동전



안젤라 페냐 데일

“계명을 지키라 안전과 평화
있으리니”(어린이 찬송가, 68쪽)

애 나는 마지막 한 입 남은
토르티야를 마저 먹었어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죠.

애나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토르티야를 좋아했어요.

아침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맛이 있었거든요.

애나는 할머니가
설거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게 여느
아침과 같았죠.
한 가지만
빼고요.

할머니는 보통 시장에 음식을 사러
가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가지 않으셨죠.
오늘은 음식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내일은 뭘 먹죠?” 애나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돈을 보았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어젯밤 할머니가 하얀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약간의 동전을 넣는 것을
보았거든요.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음식을 살
돈이 있잖아요.”

“무슨 돈을 말하는 거니?”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애나는 뛰어가서 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동전들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흔들어 보았죠. **짚랑! 짚랑!**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십일조로 내야 하는 돈이란다,
애나. 그건 **그분의** 돈이야.”

“하지만 그럼 우린 내일 뭘 먹죠?”
애나가 물었어요.

“걱정하지 말거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단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애나에게
마지막 남은 옥수수 토르티야를
주셨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으셨죠.

할머니는 드레스에 빨간색 꽃들을 수놓으시며 할머니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애나는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재빨리 뛰어가서 문을 열었죠.

“페드로 삼촌!”

“너희 집에 잠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페드로 삼촌이 말했어요. 그리고 봉투 세 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한 개에는 토르티야를 만들 옥수수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다른 봉투에는 고기가 들어 있었고, 또 다른 봉투에는 시장에서 산 싱싱한 채소들이 들어 있었죠.

“오, 우리 착한 아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미트볼 수프를 만들어 주마!”

“어머니의 수프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페드로 삼촌이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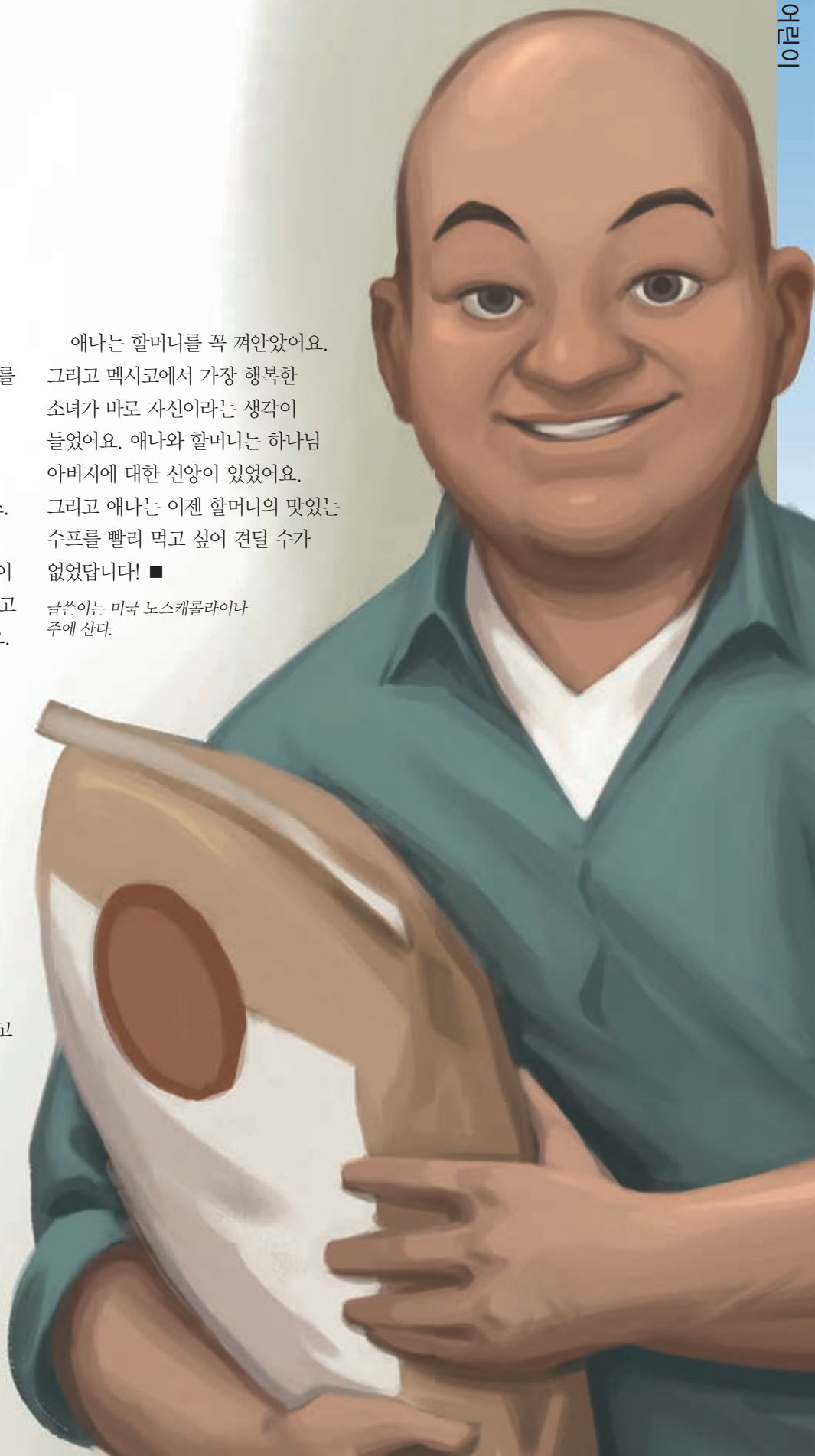
애나는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멈췄어요.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페드로 삼촌이 올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었단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애나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나와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나는 이제 할머니의 맛있는 수프를 빨리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산다.



선지자와 사도를 따를게요

제나 커포드



하 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가르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노아, 니파이, 조셉 스미스 같은 선지자와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 이야기를 읽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지자와 사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말씀을 이룩스나니 그림의 일부, 콜리크, 케이 프라이스; 조셉 스미스 2세 그림의 일부, 토크 웨켄드; 신의 생명 이야기 그림의 일부, 톨 만; 배 짓는 일을 지시하는 니파이와 리음이 그림의 일부, 제리 톨슨; 삽화: 가스 브루너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 말합니다.

선견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계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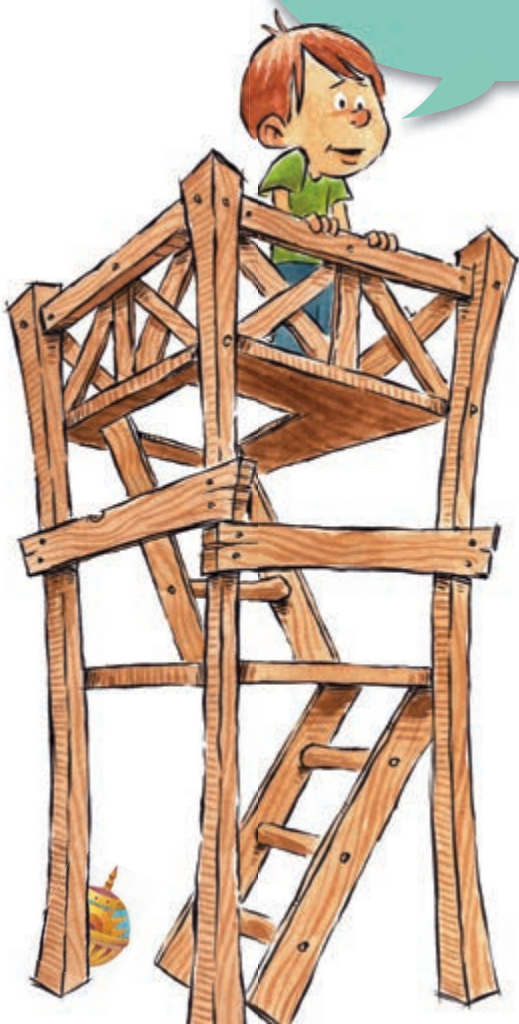
- 제일회장단의 일원은 모두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입니다. 모든 사도가 또 그렇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께 교회 전체를 인도할 권세를 받는 사람은 교회 회장뿐입니다.
- 그렇다면 살아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12 15 3 1

시 : 108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선지자는 망대(38쪽도 보세요)에서 주변을 살피는 보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 안전하게 머물 방법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권했을까요?



오늘날의 선지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입니다. 여기 그분이 우리에게 권하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 십일조와 선교사 기금을 내세요.
- 나쁜 영화나 TV, 다른 매체를 멀리 하세요.
- 침실마다 성전 사진을 걸어 두세요.
-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세요.
- 나이 드신 분들을 방문하고 좋은 이웃이 되세요.

목록에서 이번 달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고르세요. 어떤 일이 좋을까요? ■

회개한 엘마

엘마는 간악한 노아 왕의 제사였어요. 그는 선지자 아빈아다이가 계명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엘마는 악한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아빈아다이의 가르침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족이 생기자 그는 한 아들에게 엘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 골키퍼를 맡아서 공을 아주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나쁜 말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를 해야겠는데, 하필 축구를 하는 중인 거예요. 그때

뭔가가 떠올랐어요. 필요하면 어디서라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니, 회개를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피터 지, 8세, 미국 유타



데이먼 비, 8세, 미국 유타

신화, 제리드 벅스랜드



이 도전 카드를 잘라서 접은 뒤 보관하세요!



나는 회개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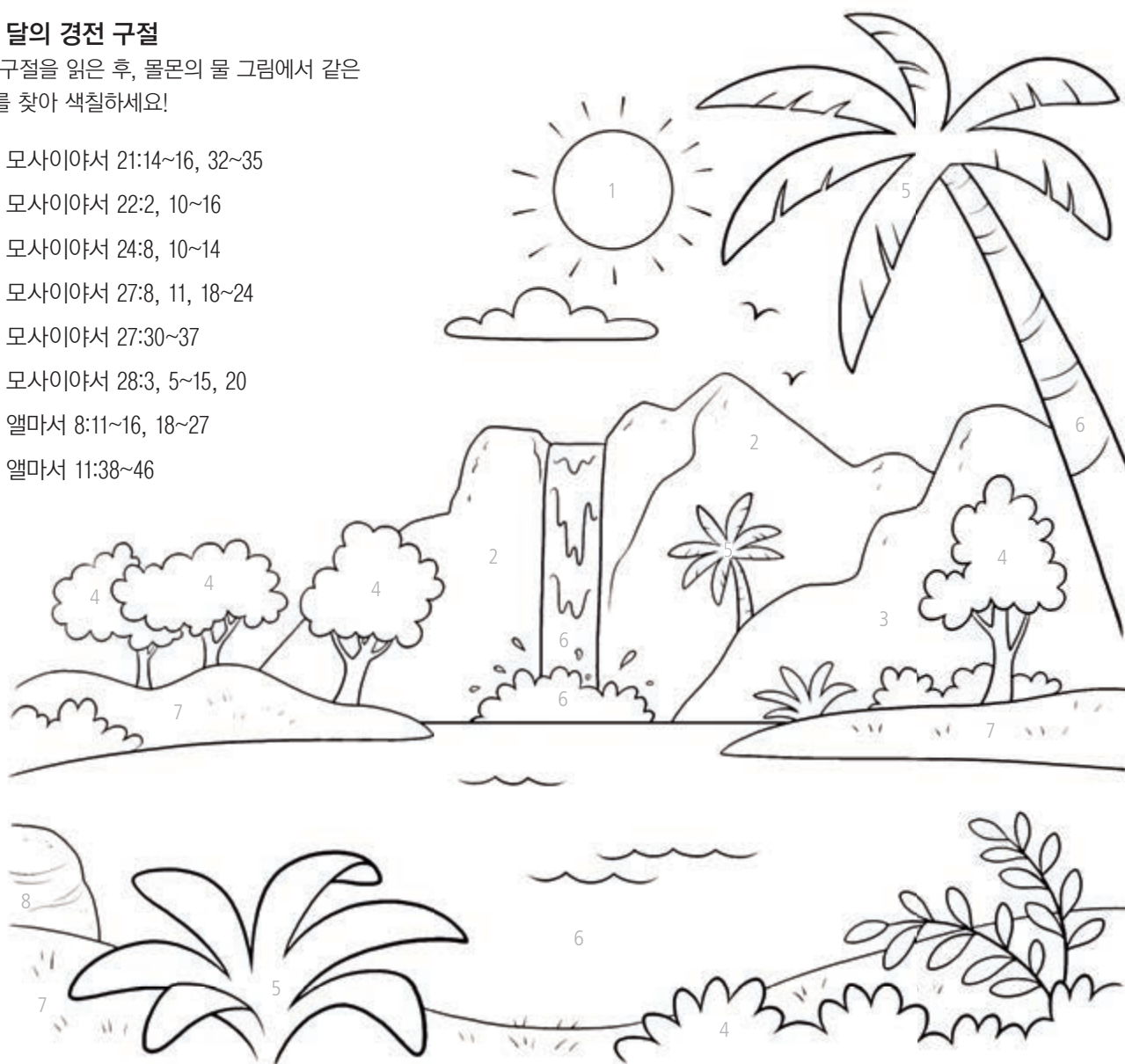
- 모사이야서 18장 9절을 외운다.
-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가 한 말씀을 쓰거나 그린다.
-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한 가지 고른다. 이번 달에 그렇게 실천해 본다.
-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나는 물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번 달의 경전 구절

경전 구절을 읽은 후, 물몬의 물 그림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 색칠하세요!

1. 모사이야서 21:14~16, 32~35
2. 모사이야서 22:2, 10~16
3. 모사이야서 24:8, 10~14
4. 모사이야서 27:8, 11, 18~24
5. 모사이야서 27:30~37
6. 모사이야서 28:3, 5~15, 20
7. 엘마서 8:11~16, 18~27
8. 엘마서 11:38~46





물몬의 물

엘마는 간악한 노아 왕을 피해 물몬의 물이라는 평화로운 장소 근처에 숨었어요. 많은 사람이 엘마가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러 왔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엘마에게 침례받을 때, 우리가 침례받을 때 맺는 것과 똑같은 약속, 곧 성약을 맺었어요. 다음 쪽에서 이러한 약속에 대해 더 읽을 수 있어요. ■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엘마



아비아다이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쁜 짓은 그만 하라고 가르쳤어요. 노아라는 사악한 왕은 아비아다이에겐 무척 화가 났어요. 노아 왕은 회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엘마라는 사람은 아비아다이의 말을 믿었어요. 엘마는 성난 노아 왕에게서 도망쳐서 숨었어요. 엘마는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아비아다이가 가르친 대로 회개했죠.



많은 사람들이 엘마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 위해 찾아왔어요. 엘마는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들은 기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그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은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엘마는 사람들에게 한 명씩 침례를 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너무 기뻐요.

우리도 침례를 받게 되면 엘마의 백성들과 똑같은 약속을 맺는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

모사이야서 16~18장 참조.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조지 큐 캐넌
(1827~1901)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영적인 은사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기로 약속하신 이러한 은사를
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질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
하나님께서 부여하기로 약속하신 이러한
은사를 구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가족과 함께, 혹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이러한 은사를 얻고자 간구합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이러한 권능과 은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돌쩌귀에
매달려 여닫히는 문처럼, 그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 신앙도 행사하지
않으며,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된 것에
만족하며, 이렇게 했으니 구원은
확실하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

...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영을 분별하는 은사,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은사,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기꺼이 주심을 저는
압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결점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온전케 할
은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게 결점이
있을까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결점을 고칠 은사를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쉽게 성을
내는 사람이라면 제가 할 일은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며,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제가 시기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구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며,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모든
은사를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 모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 도리가 없어. 천성인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고칠 힘과 이러한 것들을 뿌리
뽑을 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계획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분은 구하여 마지않는
자들에게 이 은사를 부여하셔서, 그들이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해지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

The 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 Apr. 23,
1894, 258~261에서 발췌함. 구두점 및 대문자 수정.

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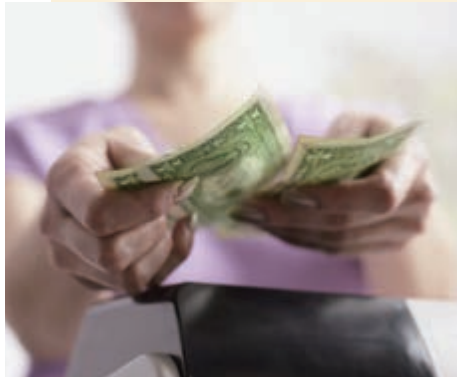
어린 시절의 믿음이 어떻게 지식과 간증으로 자랄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경전과 복음 이야기를 읽으며 천사와 같은 어머니 슬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이래로 저는 그분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 생겼던 그 믿음은 이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증거로서 성장했습니다.”

로날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0쪽.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사탄의 위조품을 알아보는 눈

44쪽

사탄의 거짓말과 주님의 진리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되는 방법이 있다.

청소년

비록

수줍음이 많을지라도

60쪽

복음을 나누는 일을 너무 수줍어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있는가?
여기 세 가지 제안이 있다.



어린이



선지자와 사도를 따를게요

72쪽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이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